옥수운권지십칠

Carpentier

옥누몽 권지십팔 종

차설 미낭왈 상공이 빙낭을 장발ᄒᆞ시믄 쳡의 영
힝이라 엇지 불효지심을 두리잇ᄀᆞ 션이낭의 발을 붓
ᄌᆞᆸ심니의 가심이 아라 ᄉᆡᆼ각ᄒᆞ더니 비록 챵기나 일홈 잇
는 자는 다 ᄃᆞ르다 미낭이 우ᄉᆞᆷ왈 금일 장동의 ᄂᆞ치을 보
니 샹공을 빙낭의게 소리ᄒᆞ려ᄒᆞ는 듯ᄒᆞ니 샹공은 한번
그 거동을 보쇼셔 션이 옷ᄀᆞᆺ 김의 ᄌᆞ라와 악일일 ᄎᆞᆷ은
셜즁믜의게 보기ᄂᆞᆫ 쳘금은 빙낭을 주어 난셕ᄒᆞ라ᄒᆞ
ᄃᆞ 빙낭을 ᄂᆞᆫ드니 죽란화각이 심본평치ᄂᆞᆫ 홍화ᄒᆞ려ᄒᆞ
ᄃᆞ일 취ᄎᆞ소록을 더지엇시니 즁장홍벽의 죽렴을 변ᄒᆞ여 거
ᄒᆞ셧시니 벽옥녀의 산호갈구리 평치ᄒᆞ더라 션이 난간을
지혀 탄왈 누쥬의 셩쇠 이러틋 편ᄒᆞ거든 ᄒᆞ물며 인
ᄉᆡᆼ이리오 쳑일 변화는 님보지 못ᄒᆞ엿거니와 샹

헌기와ᄂ부러진기둥이일로의일신ᄒᆞ니만일민셩
이헐ᄒᆞᆫ갓퇴홍안이ᄇᆡᆨ발되ᄃᆞ시홍안되여상ᄒᆞᆫ가연
이렇ᄃᆞᆺ목ᄌᆞ러번어지를경지ᄋᆞ니되오빙ᄒᆞ니ᄂᆞᆼ연ᄒᆞᆯ
쳡은허다ᄒᆞᆫ지만물이셩ᄒᆞ외락이업다ᄒᆞ니셕은ᄂᆞᆫ
쳐지볼이올비ᄂᆞᆫ낙지몰이라홍안이부족ᄒᆞ외ᄇᆡᆨ발이
부족미여ᄅᆞᆯ인령의ᄃᆞ이허여그가온ᄃᆡ청을붓치며연
본을미허셔로젼ᄒᆞ라그못ᄒᆞ니엇디가련치아니ᄒᆞ리오슐이
연당의불너슐먹허물가의허여미소ᄒᆞ니빙낭이옷ᄃᆞ일상
중이며안아셤후오시니누셜연을어ᄃᆞᆯ노허리이ᄉᆞᆫ졀
월을모일을황상이원ᄒᆞ의ᄒᆞᆫᄒᆞ시ᄃᆞ놀이라ᄒᆞ날을ᄒᆞ가
을노ᄒᆞ야열셩이뵈ᄂᆞᆼ을치거ᄂᆞᆼ이지변ᄂᆞ와ᄒᆡ지여원
양노ᄂᆞᆫ거슐잠착ᄒᆞᆫ여보ᄂᆞ셩이가ᄉᆞᆫᄂᆞᆼ의ᄃᆞ의가ᄌᆞᆷ홍
물원ᄂᆞᆼ이ᄌᆞᄂᆞ슐잠착을ᄌᆞᄂᆞᆼ이도라보ᄃᆞ렴ᄒᆞᄃᆞᆫᄃᆞᆫ두

의안회수욕을빙낭의낙셩열해려하기을칭찬하다롤
니낭이일얏슬나뫼낭이주욀씃처아저못하나이다평
동어드련와안거슬셜왈기빙낭을한번보려하더니
엇지드르니낙셩연을뭇을의현다드니셜셩은가치
가치보게하라장동이뫼낭의긔셕을보며희슈왈
빙낭이누각의숙브될쌕아녀온모의복일신하여음
모련일의빅승하여쳘셩젼여라양향은한번가보라
뫼낭이앙숍을열뢰여초연불낙하니동이욕소욀걷금
빙낭의금시발북헌거슬횽수을근융이뫼낭을일론
쳐드빙낭을들쳐골침ᄋᆞ나안향은흥운을연와을잇지
ᄡᆞᆯ수영어용누흘니장동이나가거흘뫼낭이더초욀장
바람이반다세상근가시는소식을병낭의계편동희ᄭᅵᆯ
다빙낭의와모는초롤편듯하나후온다전하여

일장 능나의 숙당이 잇실이 도다 ᄒᆞ더라 차시 방낭이 이
나형연을 버리리 노라 분ᄂᆞ허더니 장롱이 허혹이 만흔
흔여 도리오녀 허ᄂᆞ자 ᄃᆞ욕 흘여 허거ᄂᆞᆯ 빙낭이 낭 ᄉᆞ욕 알ᄇᆡ
람이 초목은 국절이 잇ᄂᆞ다 허ᄂᆞ라 평후 장롱이 송왈 낭
이나 형연을 현다 ᄒᆞ여 분요허ᄂᆞ 거라 가산이 말흘 뒤 한올
말허던 낭형을 잇지여 흔 빙낭이 축리 허여ᄂᆞ 리을
숙여ᄂᆞ 왈 엇지 이ᄂᆞ 티요ᄂᆞ 롱이 송왈 님금의 롱 뫼되여 나
형연일은 오ᄭᆞ를 보시니 그 숙친여 보ᄂᆞᆫ 낭의 숙당이 잇스니아
라허라 빙낭이 무어시라 더당현ᄂᆞ
　낭형연 롱상 장시　　현더 친향부 현유
빙낭이 ᄇᆞᆯ연ᄂᆞ연 셕왈 양성이 첩을 현기라 낫비 보아 쾌
뒤허께 ᄅᆞ다 ᄆᆞᆯ을 마음이 잇실진더 몸돼ᄂᆞ 롱심 방현 거시
오 나 초ᄇᆞᆫ으로 도라 롱요의 못거리을 말허되 요ᄂᆞ 롱이 송왈 그

쳔얼이 아니라 낭셩은 종시 뎌셩의 츌현ᄒᆞᆷ이 엇쳐ᄒᆞ온
ᄌᆞ 도기를 보고져 ᄒᆞ니라 빙이 ᄒᆞ왈 속졀은 여ᄌᆞ의 본ᄉᆡᆨ
여라 낭ᄌᆞ의 옥술은 부어셔 쇼리 오렬ᄒᆞ은다 시가 금야의
조용이 다ᄅᆡ고 오소셔 ᄭᆞ닭이로、편비 좃아 기달일 라시
나오지 안이커늘 강권치 는ᄭᆞ 소ᄒᆡ 종이 은누각의 다 차셔셩
이미 낭라상 술을 ᄒᆡ 술나기 젼셔 독란을 거ᄃᆞ 사양을 다
시굴나 잔을 버리다가 장통이 ᄒᆞᆼᄒᆡ 드러와 빙낭의 ᄲᆞᆯ
쳔고 ᄒᆡ여 ᄒᆡ나 미ᄋᆞᆼ이 소ᄃᆡᄒᆡ여 왈 쳘ᄒᆡᆼ은 이보 ᄲᆞᆯ 르ᄆᆞᆫ 소ᄒᆡ
여밤을 ᄉᆡ와ᄃᆞ 못니 견셜되는ᄒᆡ ᄃᆞᆯ니다 통이 미ᄋᆞᆼ의
ᄲᆞᆯ을 ᄎᆞᆫ 셤신이 착금ᄒᆞ야 ᄲᆞᆯ을 몰ᄒᆡᄃᆞᆫ 안쳣다가 갈셥이
빙ᄂᆞᆫ의 ᄲᆞᆯ을 젼ᄒᆡ여 셩이 찬을 ᄲᆞᆯᄃᆡ오 왈 빙낭이 국어 시라ᄒᆞ
뎌이가 장통이 빙낭의 손연을 갈현ᄒᆡ선 왈 부ᄅᆞᆼ의 가ᄒᆞᆫ
졍ᄒᆞ 갈거ᄉᆡᄂᆞ 빙낭의 김을 간라 처라 통이 손으로 ᄃᆞ고

어가르쳐ᄃᆞᆫ간혹본부의갓다가야셤혹다서미낭쳥
누의가계낭다각쳐빙낭의집의가홍의거동을보ᄂᆞᆫ줄
빙낭의집의가니빙낭이ᄉᆞᆯ장비랑이황혼붓허와가
다더니상공이집을못ᄂᆞᆫᄂᆞᆫ신가상복줄가더니다뫼낭일
바랑이울오더니톙이쇽이ᄂᆞᆫ디슐보ᄎᆞ허ᄂᆞᆫ져줄나ᄉᆞᆨ즐
그이ᄉᆞ더니장홍이ᄆᆞᆫ을열나줄나뫼낭이쇽을둘너보고
마조나가니은쳐쳐불으러홍이당황ᄒᆞ야낭이어ᄉᆞ지이
집의일으로미낭이웃ᄂᆞᆫ동의ᄂᆞᆫ미인을엿고래일을우리ᄂᆞᆫ장안
쳥주의일동일쳔의어지장셩ᄒᆞᆫ올라이ᄒᆞ오빙낭쳥ᄒᆞ
홍쇽현ᄃᆞ올수ᄂᆞᆫ리몰낫더니이ᄯᅢᄂᆞᆫ드디어강남북홍올져
허여오쳔ᄂᆞᆷ을어더일신혀ᄂᆞᆫ이일이로ᄆᆞᆫ이ᄂᆞᆫ쥬얼이로올
되못되ᄅᆞᆯᄯᅡᄂᆞᆫ이비낭이쳥을보ᄂᆞᆫ이실ᄂᆞᆫ져ᄒᆞᆫ내고부회
쳡을욕ᄒᆞ려ᄒᆞ며허명을ᄂᆞᆫ보ᄂᆞᆫ뢰ᄒᆞᆫ다ᄒᆞ니ᄂᆞᆫ둘다상ᄒᆞ

쇠을 베ᄒᆞᆫ 후가 부ᄌᆞ의 복록 탄이 반ᄒᆞᆫ ᄌᆞ로 ᄒᆞᆫ번 보면
오ᄎᆞᆫ 금이 ᄉᆡᆼ길 젹어 쳘ᄉᆡᆼ은 부귀 이ᄉᆞᆯ을 나ᄉᆡᆼ 되지니
가ᄭᅴ 말ᄂᆞ 홍이 ᄒᆡ 홍이 왈 낭이 오히려 ᄇᆞᆯ을 ᄭᅩᄌᆞ ᄒᆞ
ᄂᆡ여 ᄀᆞ리 이 뎌 ᄆᆞᆯ을 앙쳔다 ᄒᆡ ᄀᆞ ᄯᅢ 오다 ᄉᆞᆫ즁 아의 이연이
오기 ᄌᆞ 년아 ᄒᆡ여ᄂᆞᆫ 엇지 ᄂᆞᆯ리 오뇌 낭이 소 왈 셔ᄉᆡᆼ은 ᄭᅮ
당이 얼골ᄃᆡ 앙ᄉᆡᆼ이 온다 ᄒᆞᆫ 권실ᄒᆞ여 ᄉᆞ리오 ᄒᆞᆼ이 ᄋᆞᆫ
왈 고ᄃᆞᆫ 고리 ᄒᆡᆫ니 ᄋᆡᆫ 인ᄉᆡᆼ이ᄂᆞᆫ ᄒᆞ니라 부모ᄂᆞᆫ 고ᄅᆞᆯ ᄃᆞᆯ이면 ᄒᆞ
이ᄂᆞᆫ ᄒᆞ이 반ᄒᆞᆫ 눈ᄆᆞᆯ이 ᄒᆡᄒᆡᆫ 션ᄎᆡ ᄆᆞᆯᄒᆞ니 ᄂᆡ몸ᄒᆡ ᄉᆞᆨ자ᄅᆞᆯ
여보ᄂᆞᆫ 알게 ᄒᆡ귀ᄒᆡ ᄯᅩᄂᆞᆫ 바ᄅᆞ밍 ᄉᆞᆯᄒᆞ여 오ᄒᆡ ᄯᅥ니 반이션
며울 자ᄇᆡ알 다ᄅᆡᆫ 노ᄅᆞᆺ체 화ᄅᆡᆫ ᄒᆞᆼ화ᄋᆞᆯ ᄉᆞᆯ나 ᄀᆞ ᄒᆞᆼ이ᄂᆞ
왈 광ᄒᆞᆼ이 십년 ᄎᆡᆼᄂᆞ의 ᄂᆞᆫ 쳐ᄀᆞᆯ ᄂᆞᆫ ᄒᆡ ᄋᆞᆫ 인ᄂᆞᆯ이 ᄅᆞ 축ᄃᆞᆫ 인
보파ᄒᆞᆫ 잉실ᄒᆞᆼ이 엇던 남ᄌᆡ 향ᄇᆡᆨᄒᆡ여 ᄀᆞ엇 ᄂᆡ ᄂᆞᆯ ᄒᆞᆼ이
기ᄅᆞᆷ을 연ᄒᆡ며 각가이 ᄃᆞᄅᆡ가ᄂᆞ 고 ᄉᆞᄆᆡ이 옵신ᄂᆡᄒᆡ

태ᄂᆡ왈 빙ᄲᅢᆼ낭낭은 어ᄃᆡ갓ᄂᆞ뇨 장ᄉᆞ동 현셩은 어ᄃᆡ
오ᄂᆞᆫ가 ᄒᆞ니 장ᄉᆞ동이 와 인ᄉᆞᄅᆞ다가 빙뷔여거 숙운ᄉᆞᆯ 아ᄂᆞᆫ고로
으내 화현이 오ᄂᆞᆫᄃᆡ 바 장ᄃᆡ의 ᄃᆡ라 빙낭왈 쳔셩이 이남은
을 ᄌᆞᆼ뷔 ᄒᆡ 바시 ᄃᆡ여 엿ᄌᆞ온ᄃᆡ 옥셔 ᄂᆡ가 큰이 ᄃᆡᆷ ᄉᆞ왈 ᄆᆡᆼ낭
은 룩강남 부호로 강남부호ᄂᆞᆫ 주ᄆᆡ랑이 와 장룩가 호졍
되ᄃᆞ 호졍이 룩장 ᄅᆞᄃᆡ과 인ᄃᆞ 내ᄂᆞᆫ 이랑이 와 도ᄒᆡᄒᆞᄂᆞᆫ 강남
부호자도 ᄒᆡᄃᆡ 장ᄅᆞᄃᆡ은 견셩 거자말은 냥ᄂᆞᄃᆞ하 ᄂᆞᆯ러파
슐을 나와 셔로 권ᄒᆞ매 내빙ᄂᆞ 뵈 ᄐᆡᆼᄂᆞ 롱숙ᄒᆞᆫ 날을 ᄒᆞ니
롱이 ᄎᆡᆼ쳔ᄒᆞ여 후 오월 ᄂᆞ셩에 화장인 ᄎᆞᆷ여 ᄯᅢ기 ᄒᆞᆼ
ᄒᆡ기ᄂᆞᆫ 롱의 숙란ᄒᆞ여 와 ᄂᆞ려와 환ᄅᆞ 원ᄂᆞᆫ 외롱가 ᄂᆞ서ᄒᆡ연
왕부려 시외 발ᄒᆞᆫ ᄒᆞᆫ 과셩이 ᄒᆡ여 거ᄂᆞᄀᆞ 편주ᄃᆡ가 불
ᄃᆞᄐᆡᄃᆞ 빙낭의 낙셩ᄒᆞᆫ 보지 지의 모르니 ᄒᆞ물셔 장아가 ᄆᆡ
와 ᄒᆞ면에 오로록 십간 ᄎᆡᆼ수의 부게을 ᄲᅵᄃᆞ 궁랑ᄒᆞ며 와ᄇᆞᆫ

목을돌니시ᄆᆡ상여상명의옥상라ᄒᆞᆫ말을보고ᄀᆡ항
을ᄒᆡ외동낭동녀쥬확산죄인ᄒᆞᄂᆞᆫ졔기의욕관
셩식이ᄒᆡ황찬ᄂᆞᆫᄒᆡ여이ᄌᆞᆷ더러륙져아소다줌일쥴
거이울ᄂᆞ라ᄌᆞᆯ나ᄐᆞ고방평ᄉᆞ의ᄒᆞᆫ영이자ᄌᆞᆫ헤나져상지인이
한번보고ᄌᆞᄒᆡ더다방미낭낭이동ᄒᆞᆫ평ᄉᆞ의문호을난화
져게상합ᄒᆡᄂᆞᆫ심ᄉᆞᆼ을빗최여일호져ᄎᆞ두신을두니당
숭이도한ᄂᆡ셰외라일ᄂᆞᆫ쥬셩이져당의ᄋᆞ여상두와거울
을보니동ᄇᆡ슈확ᄒᆞᆫ거상이혐ᄒᆞᆼᄒᆡ여편일ᄎᆞ동평
중ᄒᆡ뷔ᄃᆡ상부동ᄒᆞᆫ지라번연게ᄎᆞ의ᄉᆞ연ᄒᆞᆫ시와를네ᄂᆡ
명ᄀᆞᆫ회ᄌᆞ조년랑심을쳬여죠ᄎᆞᆺᄎᆡᄂᆞᆫ일시롱ᄌᆞ관ᄒᆡ고ᄅᆞᆫ
이ᄒᆡ통ᄒᆞᆫ명ᄒᆡ을거ᄇᆡᆼ의일으로광뷔ᄂᆞ로ᄂᆞᆫ여인ᄉᆡ의ᄀᆞᆷ이
복ᄀᆞᆼ이여울치ᄎᆞ피빈ᄒᆡᄂᆞᆫᄀᆞᆫᄀᆞᆼ입ᄒᆡ여ᄆᆡᄇᆡᆼ슈ᄎᆞᆫᄇᆡᄒᆡ
너ᄒᆞᆯᄎᆞᆨ불빈ᄒᆡᄃᆞᆫ여엇지ᄒᆞᆼᄉᆞ죽ᄉᆞᆼ의한ᄀᆡᆼ셩ᄉᆞᆫ

뎌오일ᄅᆞ듯이보로여대거방ᄒᆞ ᄯᅢ엇더니반팡지
흉조흉ᄎᆡᆨ이방일ᄒᆞ여동거도거이ᄂᆞᆫ위졍을ᄌᆞ조변을
나엽벽ᄂᆞᆫ뫼방연복지ᄒᆞ시ᄂᆞᆫ불초ᄌᆞ을보ᄋᆞ가뇌ᄉᆞ랑
ᄒᆡᆫᄂᆞᆫ빗으셔어엇지과시뫼ᄒᆞ련ᄒᆡ이오ᄂᆞᆫ디로ᄌᆞ혼ᄉᆔ와
셕온비컨데ᄉᆞᄆᆡ진친가ᄉᆞᆯ여한변ᄌᆞ시ᄒᆞ면ᄃᆞ조ᄒᆞ부
미ᄒᆞ려ᄅᆞᆯ니거와반변을ᄌᆞ랑ᄒᆞ여젼ᄌᆞ제기ᄃᆞ변ᄉᆞ을
다보ᄋᆞᆺ시어이ᄎᆔᄭᅩᆫ되여변이ᄂᆞᆫᄎᆔᄀᆞᆫ라이엇지ᄒᆞᆫ셤ᄒᆡᆼ
너ᄅᆡ올아리ᄒᆞᆫ번ᄭᅳᆯ단ᄂᆞᆫ피다시옥ᄒᆡ엽ᄉᆔ록ᄂᆞᆫ거니양
션의계ᄭᅩ을내강잉ᄒᆞ여일ᄂᆞᆫᄒᆞ의박졀뢰못ᄒᆡ즁에
당ᄂᆞᆫ하엽을힘ᄊᆞ니ᄯᅥᆺ황나ᄒᆞ여ᄒᆡᆫ인ᄌᆡᆫ을ᄲᅢ셔
복편의온시ᄒᆞ러불평ᄒᆞ여ᄌᆞᆼ이불ᄒᆞᆫᄂᆞᆫ거ᄅᆞ난ᄒᆞᆫ의
흥변으로ᄂᆡ혈의방열ᄒᆡ불징자ᄀᆞᆫ조용ᄒᆞᆯ상ᄒᆞᆫ이
계셩을은당ᄒᆞᆫ실진ᄒᆡ은라을ᄒᆡᆫ조ᄎᆔᄒᆡ와셩ᄂᆞᆫᄌᆞᆯ이

젹싸우리잇여그뒤로두변흉ᄒᆞᆫ방일리심이날가들나ᄒᆡ라
거울ᄯᅢᄂᆞᆫ초쉬왕이본귀남쳥지언은복심이로리여써쇠
씨여곤ᄒᆞᆯ일ᄂᆞᆫ아무연복다ᄇᆡ의측일ᄂᆞᆫ즉ᄋᆞᆷ시을쓸ᄋᆞ난셩
어측명이되허여라주을찰일쉬취야ᄂᆞᆫ심후ᄒᆞᆫ뎡을
깟드형각허러우여여롱누당외오라쇠광을친허여다가
본심을회복ᄒᆞᆯ여시다이일단졍곤은오히려아조텐채
지모ᄒᆞ드리거의졍방허ᄂᆞᆫ륵다시쳥수의가리못허변인
쳥의결ᄯᆞᆫ지여러올허ᄃᆞᆫ즌로귀남을빙낭경으로
홍이즌ᄂᆞᆫ빙낭쳥수의이로니낭여ᄭᅦ며옴은되월상
군이쥴일심방지여신어이지신가로오뎐니오셔어의와
로츄이다쇽일난낭외슌을결ᄃᆞᆫ라드려오ᄂᆞᆯ복형시하
뇌울을입을광주이엿지허러쇼왼이쥐옹서그쇠ᄃᆞᆯ낭
나쳔은믈이넘어ᄆᆞᆫ일ᄂᆞᆫ응서외쳔방허변걸단

로다서근이곳의투죡저못할지라금야낭낭을
채ᄎᆞ의평화을ᄅᆞᆯ쇠ᄒᆞ리니낭낭은각소회을발
을되이별의동다. 을바란낭이이ᄒᆞ기을리오낭낭난
낭이발을이엉치술을가희다가숙비석반혹ᄒᆞ되낭
이가은일구을불니왈
쇄보고오는ᄂᆞ비갈죠을모로ᄂᆞᆫ가삼죵이장모ᄒᆞ니화
나인ᄃᆞᆯ미양ᄒᆞ리술ᄒᆞᆫ진반베보어가는ᄂᆞᆯ위평ᄒᆞᆫ
여번둑이늘시ᄒᆞ노라 방낭ᄋᆡ어복니기망와왈
꽃보기ᄅᆞᆯ쇄고말ᄃᆞ쇄기ᄅᆞᆯ비리리나슬보ᄃᆞ여ᄃᆞᆫ비러니
이리서계길가의절ᄊᆡ을ᄂᆡ야생가ᄒᆞ노라.
난낭이노ᄅᆡ을맛ᄃᆞ빙낭은ᄒᆞᆫ부어ᄒᆡ여연ᄂᆞ리ᄒᆡ을이
긔지모ᄅᆞᄃᆞ비낭은ᄒᆞᆫ번오닙ᄒᆞᆫᄃᆞ게도의안구박서분록
을취못화의어산나남ᄌᆞ여지못ᄒᆞᆫ쳐부의일을ᄉᆡᆼ각ᄒᆞ니ᄒᆞᆫ
병외쳔리고이나대을다시산상공이중혀을곤으사ᄒᆞ평ᄒᆞᆫ

은어지마 ᄆᆞ로 처치ᄒᆞᆫ이오 채활을 ᄒᆡ 붓슬 ᄭᅥ을 ᄯᅢ득가
을거야 ᄒᆡ리로 리은ᄃᆡ라 ᄃᆡ일에 랑ᄒᆡ미 장우와 드리가 삼
장시권의 ᄉᆡᆼ이나 강라로 ᄒᆡ 병ᄒᆡ나 상이 ᄃᆡ희 ᄒᆡ는 얼은숙
주 둘실어 ᄒᆞᆫ리 ᄆᆞᆯ이라 ᄒᆡ나 남쳥 국의 아ᄃᆞᆯ이 국가ᄆᆡᆯ
이여우ᄒᆡ 오ᄒᆡ시ᄃᆡ 옹방ᄒᆡ 일인 양거셩의 ᄇᆞᆫ이 십은 봉복
는연왕이 ᄌᆞᆼ 죽의 ᄒᆡ소는 오랑ᄒᆡ는 황숑ᄒᆞ여 상ᄒᆡ여
육지는라 호방 장원은 뇌불ᄉᆞᆼ을 ᄃᆡ장은 뇌ᄒᆡᆫ 훙의 ᄒᆡ여
숑이오 ᄒᆡ이는 비달은 지는 마ᄅᆞ이라 ᄐᆞᆷ평ᄒᆡ 인ᄌᆞᆫᄒᆡ 옷악
홍ᄒᆞ 일지와서 ᄌᆞ미 ᄋᆞᆯ 죽시ᄂᆞ 소아ᄒᆡ 시여 ᄒᆞᆫ나서으로 ᄒᆞᆫ
남ᄒᆞ소을 ᄒᆡ숙ᄒᆡ 소은ᄯᅢ 을ᄯᅢ이시나 양ᄒᆞ셔 흉호오소
조욱호을 잡아이 왕ᄇᆡᆼ 아을 압ᄒᆡ 우ᄅᆞ녀 훙의 도다
을여ᄇᆡᆫ 왕이 남ᄂᆞᆫ을라 ᄒᆡᄅᆞ리 ᄃᆞ을ᄒᆞᆫ라. 장이 ᄅᆞ상을 렴
ᄒᆡ나온 ᄂᆞ 훙인의 주평ᄒᆡ는 ᄂᆞᆫ ᄂᆞ흉 너ᄭᅧ ᄒᆡ고ᄅᆞᆯ

ㄷ 이별ᄒᆞ고 분ᄒᆞᆫ의 ᄅᆞᆼ 온라 명화을 ᄭᆡ다른ᄂᆡ
홍화 청우의 모르기ᄂᆡ 구강ᄒᆞᆫ 백미 뒤낭낭을 보아
쇠한 허니 즉 거리니 양ᄒᆞ여 즉 속평신의 화거 몬즉ᄒᆞ
녀 홍정을 보니 더니 내미양 인의 지낭을 볼ᄭᆡ 기닷ᄉᆞ로
아ᄃᆞᆯ을 더러 화통ᄒᆞ더다 이치상정은 뇌천 ᄒᆞ라ᄒᆞ니
ᄯᆞᆯ이 홍이와 이ᄌᆞ을 앙체우ᄌᆞ 징ᄒᆞ다가 풀더지ᄅᆞᆯ 보ᄂᆞ장
장은 뇌천통이 무궁ᄒᆞ여 옥ᄒᆞ미 ᄃᆞᆯ다ᄒᆞ며 ᄋᆞᆯ 내상구ᄒᆡ의
둥라ᄒᆞ며 노상을 ᄀᆞ리ᄃᆞᆯ서 평주광기팔을 뷔을 ᄃᆞ려ᄃᆡ은
화상ᄒᆞᆯ 번ᄒᆞᆫ 즉 봉ᄒᆞᆫ의 순계을 쉬더 밀거ᄂᆡ 되고ᄀᆞ
을ᄒᆡ지 못ᄒᆞ엿더니 금일이 홍의 옥이 전제을 당ᄒᆞᆫ고로
다ᄒᆞ여 ᄂᆡ허리 글즉 그저 ᄒᆞᆫ더니 난ᄒᆞ여 ᄇᆡᆨ홍의 통은ᄒᆞᆫ이
곤당ᄒᆞ여 국의 깃거ᄒᆞ며 미비ᄒᆞᆯ 더 ᄒᆞ엿더라 시의 ᄒᆞᆫ처령
군황ᄒᆞ회 일ᄒᆞᆫ이 녕을 ᄃᆞᆫ렁ᄒᆞᆫ ᄉᆞ 진ᄋᆡ ᄉᆞᆨ 왼군회 비ᄒᆞ연

십삼의 뢰모덕챵이 ᄒᆞᆯ어 범ᄀᆞ치 내ᄃᆞ라 ᄂᆞᆫ당ᄒᆞ시
ᄅᆞ 낭쳔조아 조쳘지 송을 ᄉᆞᆫ복 ᄭᅡᆼ을 간쳔ᄒᆞ오ᄃᆡ
황휘쳔은 거ᄅᆞ왈 작일 신방찬 병ᄒᆞᆯ젹 군ᄂᆞᆫ
이보ᄅᆞ와 연왕ᄭᅴᄂᆞᆫ 거션의 옥안녕쳐 장쳥의 우이라
ᄒᆞᆯᄅᆞ 쳥찬ᄒᆞ오 그 황의 복은 옹인이 ᄅᆞ이 ᄂᆞᆨ이ᄒᆞ온
지라 연왕의ᄭᅴ 보옹이라 ᄒᆞᆯ옹ᄋᆞ 송왕의 훈ᄉᆞᆫ을 구ᄒᆞ시
ᄲᅡᆺ당ᄒᆞᆯ 가ᄂᆞᆯ ᄂᆞ이다 상이 우ᄉᆞ여 달이 ᄯᅩᄒᆞᆫ 옥이ᄒᆞ시
인ᄂᆞᆫ이다 ᄒᆞ시ᄂᆞᆫ 병조의 연왕을 인쳔ᄒᆞ소ᄂᆞᆫ ᄉᆞ을 의논ᄒᆞᆯ
시어왕이 황ᄉᆞᆼ 흔ᄃᆞ 숙ᄒᆞ여 아 ᄌᆞᄒᆡ 각인ᄋᆞᆫ이 노목옹 별ᄂᆞᆫᄒᆞ여
옥연의 부랑을 불ᄂᆞᆫᄉᆞᆫ ᄒᆞ나 불옹ᄂᆞᆫᄒᆞ시ᄂᆞᆫ 왈 장쳔ᄂᆞᆫ 어
되어 ᄉᆞᆫ회의ᄂᆞᆫ ᄎᆞᆨ왕은 경의 ᄉᆞᆨ되 공하 팔ᄃᆡᆼ은 일ᄃᆡ히 회ᄀᆞᆯ
시어 황각 노다ᄒᆞ여 일ᄂᆞᆫ 모ᄉᆞᆫ 왈경의 ᄃᆡᄉᆞᆯ 이징의 ᄉᆞᆫ회 ᄎᆡ면연
지의 여옥ᄀᆞᄅᆞ ᄒᆞᆫᄆᆞ라 ᄌᆞᆨᄂᆞ 국되실 실의 ᄃᆡᄉᆞᆯ 짝쳔

은셩의조못해변화거상이라ᄒᆞ더니이제웃듬하
가ᄅᆞ시면불감ᄒᆞ오나그거상을맛ᄌᆞᆯ가ᄒᆞᄂᆞ이다ᄒᆞ더라
일ᄋᆞᆫ외계하ᄅᆞᆯ여ᄒᆡᆼ네ᄒᆞ니외되ᄋᆞᆫ제기ᄅᆞᆯ외나공쥬
외러옹이옥한졍을ᄒᆞ여ᄒᆞᆯ봉ᄌᆞᆫ쾨ᄅᆞᆯ보외오건의엳호
도듬의옥여내의고만ᄒᆞ여여ᄒᆞᆷ니로ᄅᆞᆫ보ᄂᆞᆫ쾨거ᄒᆞᆫ명완화
다부ᄒᆞ여불칭ᄒᆞᆫ가미녕ᄒᆞ여과시ᄒᆡᆼᄒᆞ리ᄅᆞᆯ평
졍ᄒᆞ시ᄂᆞᆫ예ᄡᅥᆼ부ᄒᆞ오ᄂᆞᆫ슌을ᄯᅥᆯ낭ᄒᆞ시다가남북ᄒᆞ며
등일ᄅᆞᆯ쾨못ᄒᆞ여불ᄀᆞᆫ못ᄇᆞᆯᄯᅥᆯᄒᆞᄂᆞᆫ한무쾨ᄲᅡ구ᄒᆡᆨ지ᄒᆞᆫ
ᄅᆞᆫᄃᆞᆫ슌ᄋᆞᆯ의양ᄋᆞᆯ시험부쳔ᄋᆞ여ᄀᆞᆫ봉ᄋᆞ이ᄲᅡ여오라
울화결ᄒᆞ여변경ᄋᆞᆯ치납고ᄌᆞᆫ니여ᄒᆞᆫ의ᄋᆞᆯ니ᄒᆞ여죵
시ᄒᆡᆼ부ᄡᅡᆺ지못ᄒᆞ여옥변ᄒᆞ리조흥ᄒᆞ기ᄅᆞᆯ쳥ᄒᆞ여야
울변ᄒᆡ고이ᄋᆞᆯ시ᄅᆞᆯ하ᄌᆞᆫ산의웅거ᄒᆞ여미운ᄉᆡᆼ
울ᄋᆞᆫ조쳠범ᄋᆞᆯ변졍이ᄌᆞ오ᄒᆞᆫ리의상ᄋᆞᆫ쥐ᄋᆞᆫ평

제일은 다리 부용과 미앙을 믄ᄃᆞ여 잔을 향ᄒᆞ여 여장
쳥이 봉의 ᄯᅳᆯ을 웅거ᄒᆞᆫ 격셔을 보기두 홍장히 별
이젹 불가로다 그ᄃᆡ 셔울 평안ᄒᆡ 보ᄂᆞᆫ니라
상이 ᄃᆡ로ᄒᆞ여 ᄉᆞᄇᆡᆨ 노ᄅᆞᆯ 봉ᄒᆞ와 ᄂᆞᆫ 운시ᄂᆞᆫ 친졍 그려ᄒᆞ사
나 변왕이 ᄎᆞᄒᆞ되 부쟉은 남방 ᄒᆞᄂᆞᆯ 나 그 본셩이 홀연
올ᄂᆞᆫ 흑신 갑옷을 ᄒᆞ여 금ᄌᆞ로 이ᄅᆞᆯ 망이라 ᄒᆞᆷ국을 ᄒᆞᆫᄌᆞᆨᄒᆞ
ᄂᆞ 변경을 침노ᄒᆞ여 ᄌᆞ의 ᄌᆞ노라 ᄒᆞᄂᆞᆫ 실ᄉᆞᄌᆞ ᄂᆞ미외ᄌᆞ
ᄒᆞ여 인ᄌᆞᄅᆞᆯ 취ᄒᆞ망ᄒᆞ고 북ᄒᆡ ᄒᆞᆯᄂᆞᄅᆞ 쥰ᄂᆞᆫ 병왕으로 ᄇᆡ이ᄂᆞᆫ 되외
부러ᄒᆞ여 ᄇᆡᆼ젹ᄇᆞᆯ 흉ᄂᆞ 치이ᄒᆞ여 ᄂᆡ 한고조의 운나이 ᄎᆞ보신
명장이 쳘긔ᄂᆞᆫ 쥬ᄂᆞᆫ 결ᄉᆡᄒᆞ여 ᄇᆡᆨ등 칠일의 위견을
쟈인ᄂᆞᆫ 한무제의 궁병독무로 진셩셜ᄌᆡ지을 괘셜ᄒᆞ리
놋ᄒᆞ여 ᄉᆡ시이 죄ᄒᆞ되 ᄇᆞᆫ 승지ᄒᆞᆯ ᄒᆞ여 셔ᄂᆞᆷ으로 일각ᄒᆞᆫ 연
을 침ᄅᆡ 뭇ᄒᆞ여 ᄉᆞᆫ진쳥ᄒᆞ며 셤은 그 위되ᄒᆞ기 ᄒᆞ여ᄂᆞᆫ ᄂᆞ

지쁠어지완을 텬이 펴기와 기여 아이여기게 아니리
잇슬 복원 권리는 본국의 엄칙ᄒᆞ야 즛게 긔한죄를 시영
히여 발근 천사 쇼쇠근 연퇴 거ᄒᆞ되여다 상이 부른 청ᄒᆞ신
친평ᄒᆞ시기를 결단ᄒᆞᆫ 세드른 위렴 ᄐᆡᆨ이든 세왕
이여러번 간치 못ᄒᆞᆫ니 상이 연완으로 취근을 보ᄒᆞᆫ
내홍보를 밧드러 감수ᄒᆞ여 실숙지 ᄒᆡ을 ᄡᅡ오과 ᄒᆞ
시견병여 상 ᄒᆡᆼᄒᆞᆫ 장셩으로 부된 츅을 삼ᄂᆞᆫ 상장ᄂᆞᆫ니
환룡으로 견록을 버히시ᄂᆞ 친이 로완속 되는 ᄅᆞᆼ리
셔ᄅᆞ과우이 ᄂᆡ보 청ᄒᆞ여 토와뢰슈 동롤의오 슈ᄂᆞᆯ다
후군귀강 옹옥경등 일리 명장을 거나리순 ᄇᆡ이 귀군
을ᄌᆞ혼ᄂᆞᆫ러 여 ᄒᆡᆼ근러 쇄여 관거 ᄉᆞ 체ᄃᆞ이과 그각 관셩은
쵠리을 룬ᄃᆞᆼ 엽츅 편근 평ᄒᆞ 경ᄐᆡᄒᆞᆫ다 의 일취을 펼
● ᄅᆞᆼ이과 ᄌᆞ라리 방의 뵉성을 위로ᄒᆞ시ᄆᆡ 괴ᄅᆞᆫ근을 ᄅᆞᆷ

담믈귀샹여 반부피샹텬근의 겸대을 퓽숑ᄒᆞ더라
신쳐졍의 일을 우샹ᄒᆞ여 경쳥ᄒᆞ여 일ᄒᆞ이 비ᄂᆞ니라 ᄒᆞᆼ인을 ᄂᆡ부
로구ᄒᆞ소 뒤근을 호제ᄒᆞ시ᄂᆞ다 ᄉᆞ안 블ᄒᆞᆫ 티일을 샹근샥망
군ᄉᆞ을 뫼으시여 ᄃᆞᄉᆞ 츅ᄇᆡᆨ만이라 근거ᄒᆞ ᄒᆞᆯ이 ᄇᆡᆨ여의이여
산쳔ᄒᆞᆯ 븍ᄒᆞ 군ᄒᆡ을 좁는듯 ᄒᆞᆫ신이양 장ᄒᆞ니 ᄇᆡᆨ의 ᄆᆡ음
츅쥐 고뎜은 을 감ᄎᆞ 난리라 샹이 홍로즁감으로 쳔ᄒᆞ여 뎌
의오로는 안일을 쳔ᄒᆞ의 계하 조왈 네 블식쳔ᄒᆞ 즁은 간범샹
국ᄒᆞᆫ대 졉이 광셩도 ᄐᆞᆫ을 블인라 시ᄒᆞ여 간랑 ᄇᆡᆨ샹군
너금 둥쳔 오키ᄒᆞᆫ 낭네 궁히 ᄊᆡ호ᄒᆡ거ᄂᆞᆫ 두시오ᄂᆞ 블
녕이면 ᄒᆞᆼ복ᄒᆞᆫ여 부리ᄒᆞᆫ셩 병을 ᄒᆞᆫ긋 ᄆᆞᆯ고 야 올ᄒᆞᆫ 셔ᄒᆡ
로쳐을 ᄇᆡᄅᆞᆫ 인ᄒᆞ야 괴간 뒤군을 거ᄒᆞ여 즁ᄒᆡ 뎜시 고로ᄒᆞ여
쳔ᄒᆡ 뒤근을 모라 쳥ᄒᆞᆺ거ᄂᆞᆫ 쳐 츅쥬ᄒᆞᄂᆞᆫ 군ᄂᆞᆫ을 ᄇᆡ니고로
은 븍오로 ᄒᆞ은ᄒᆞᆫ 셩을 ᄒᆡ 라부 일인 ᄒᆞ닙ᄂᆞᆫ 거라 ᄒᆞᆫ라

안체울 볼을 휜 곤든던 병이 우스러 부외 유양장
색을 도평 병일울산을 가아 편황성이 목울 봉근퇴
을 보근 도라 ᄒ세근 돈울이 달노 황성에 ᄯ울 유문 란게괴
가 현목외 통ᄎ을 탕지 둘파 둘시근 구남은 장 둘을 거ᄒ
퇴순 크게 신병허시더니 차시 선외 힌란 신부편에 몽근
변흑만근을 강아 편 명무한 여라가 일시외 상울한ᄇ 천
근을에 외쌍어 나밀연 마ᄂ께로 삽울한 을 휜근 동귀퇴
예외 새근 반로 길을 아운 휜병의 숑려 만에 의퇴
니한상자의 신택한 ᄆ 호평시면 ᄋ울 버히근 아모리 산
거출래 ᄎ퇴울ᄉ는 이당치 못디근을 찰헤서며 거근
이흑라번울 이ᄎ지 못산양근 기록준 순울 버ᄋ어리당은
티보한 췌가 장외 궁더ᄂ 몰빈동퇴에 외 쐰가서 보
한한ᄋ이 말근 퍼근 뷔폭쾌근 퇴운 이어던장 췬근 빈퇴울 보

라 화만왕 편ᄒᆞᆫ 슌면 육유ᄂᆞ 보살 편본
시의 ᄋᆡᆼ원에 왕병을 맛ᄂᆞ와 ᄒᆞᆫ란ᄉᆞᆫ동 편의 볼ᄂᆞᆫ 되와나
여가 살되야 화병을 보지 못ᄒᆞ더니만 곳지 정지여ᄯᅥᆫ 고
리만 잇혀 ᄀᆞᆷ만 허물 살지 ᄯᅡ로 되나 오ᄂᆞᆫ 체ᄒᆞ여 알디로
병이 정ᄒᆞ여 ᄂᆞᆯᄂᆞᆫ 쇼ᄆᆞ랑ᄒᆞ야 그 몸을 뒤여 볼ᄂᆞᆫ 병 쳥ᄒᆞ는 격
쳐을 니ᄅᆞᆫ 원ᄎᆔ 그 화병을 흉이 되 널 옴이 박 ᄇᆞᆯ ᄒᆞ워
궁효ᄒᆞᆼ이 귀 왈지 ᄀᆞᆷ복 편욕은 빅ᄒᆞ여 ᄯᅥᆺ다가 병 ᄎᆞᆫ ᄒᆞᆫ을 쳐
누관의 예 뫼 ᄡᅡ ᄂᆞᆫ 몸ᄂᆞᆫ 병을 쳥ᄒᆞ되 간다 ᄒᆞᆯ 거ᄂᆞᆯ 원ᄎᆔ
정려여 곱히 달녀 퇴극 산ᄒᆞ여 와 뫼ᄂᆞᆫ 화병이 ᄆᆞᆫ신 ᄐᆡ야 ᄒᆞᆯ
여 편ᄂᆞᆫ 계신 곳을 아지 못ᄒᆞᆯ 리라 ᄒᆞᆼ 리ᄉᆞ 쵸ᄒᆞ여 곰히 전
을 편ᄒᆞ여 일ᄂᆞᆫ 자ᄉᆞᆫ을 일ᄂᆞᆫ되 통간을 쇼공ᄒᆞᆯ 편ᄒᆞ되
복을 겁을 드ᄅᆞᆫ 길을 여뢰 ᄒᆞ고 ᄉᆞᆼ연을 ᄇᆡ려 ᄂᆞ리 쉬을
너여 일ᄆᆞᆫ ᄒᆞ여다 아ᄂᆞᆯ 편ᄂᆞᆫ 뎌이 여편ᄒᆞᆫ술 펴

십숑의 너군을 쳔히 기를 바라더니 분두로 쳔으로 좃
츤 폿쳐 드러와 통을 희여 쳐장을 쉬여 근셔을 치면 통
의 장 숑을 버패 롯쳐 허워 쳐왕 이연 보이 아가고
뻐이라 이런 뒤 중을 득통의 나와 원숙을 에워 싸니 지라
이의 부로 길도이 오랑캐 ㅃ 상이 쳐 장을 고옥 허신 등을
다라와 우늣 살며 뎌 우흠을 에 더 로 황셩으로 드시근쉬
군을 숙습허나 ㅃ 거 상허여 더라 상이 갈이 슈 호셔이
부터 에 헛 물 거슬 로 구쳐이 편조을 좃칭허 고 장평
빠 달등의 오 돕이 아 쇠 쳡은 허라 향이 됴비 경는다
운명물 바 둘에 나가 이 쇄 망원 슈 호국의 신쇠 천근
졔신 곳을 모로근 황상이 군 수라 파훨 황상 계신 곳을 보
로다 기 봄을 드러 보지 굿 허믈 피라 여롬이 할을 신쥴거
둔흣고 불선예 번ㄷ 랑셔으로 가오시라 허근 뫼봉 감을

들ᄂᆞᆫ 말을 ᄎᆔᄒᆞ다 ᄒᆞᆫ 호령ᄒᆞ니 비ᄅᆡ보ᄂᆞᆫ 곳을 ᄎᆞᆺ 후ᄒᆡ여
쳐ᄌᆞ장ᄃᆞᆯ은 ᄉᆞ연 원을 ᄒᆡ여 보ᄂᆡ 쟝은 오ᄂᆞᆫᄃᆡ 거ᄉᆞ 빅ᄒᆡ 곳ᄒᆡ
라 장셜이 양쳔 탁ᄌᆞ 비을 ᄎᆞᆼ팅ᄒᆡ여 근상을 얼을 곳 엇지
로 되가ᄒᆞᆫ ᄒᆡᄂᆡ 흔보이 부용 검을 ᄂᆞ여 호ᄌᆞᆼ 상ᄒᆞ여 ᄋᆡᆫ을
내ᄒᆡ여 ᄯᅥᆫᄃᆡ 진상의 쳐ᄌᆞ 쟝셜의 흘롱을 보ᄌᆞ 로ᄒᆡ여 ᄃᆡ견
울 보ᄅᆡ ᄂᆡ 갈ᄉᆞ 은ᄒᆡ 믈을 니 수상 우ᄒᆡ 의 슈ᄒᆞᆫ 울 지 과지ᄂᆞᆫ을
변 엇지 쳥ᄃᆡ을 강청ᄒᆡ 뢰오 ᄒᆡ근 진흉의 곳ᄒᆡ ᄒᆡ여 원
슉을 ᄲᅡ ᄌᆞ니 보ᄂᆡᄂᆞᆫ 혼랑 리 볼ᄭᅴ 주편 쾅을 숀ᄂᆡ 사람ᄒᆞ
금셕 ᄀᆞᆺ튼 순ᄃᆡᄂᆞᆫ 금셕을 순 못 ᄃᆞᆯ니 가ᄂᆞᆫ 잔이 ᄂᆞᆯ이면 비 ᄂᆞᆯ니
ᄋᆞ뢰 ᄭᅢ져 ᄒᆞᄂᆞ ᄂᆞ 주년 쾅을 ᄃᆞᆯᄂᆞᆫ 원ᄉᆞᆯ ᄲᅡ ᄌᆞ 상ᄒᆞ니 의 쳐ᄅᆡᆼ이
슉상 ᄃᆡ 물 보ᄂᆞᆫ 몸을 건ᄌᆞ 져ᄉᆞ ᄃᆞᆫ ᄃᆡ 롱ᄃᆡ여 고람 쟝ᄂᆡ 아라
비영 강이 쳥ᄋᆞᆫ 올ᄋᆞᆯ 비쌍 ᄀᆡ 이 나ᄂᆞᆫ 영을 보ᄂᆞᆫ 거 ᄉᆡ을 ᄆᆡ영
편호 구평ᄒᆞᆫ 쳔우 구평 잔을 드러 ᄂᆞᆫ ᄒᆡ인ᄒᆞ면

비토를 길온 비뢰 곰뢰 금을 소소니 비 후에 란슈을
이 샹회 고 황을 쌔그 블 잠간 샹고 결 본 두 내리온 편
연환 갈 소 퇴나며 갈날이 근퇴와 편온을 헌출나 와우 키를 든
대갈이 모와 철우의 내리며 퍼리니 원쥐며 겸법을 소비하
원쉬 편우의 육손을 버현의 머리를 이 시살 폐며 편우 쥭은 뒤로
병이 열시 돌려 퍼여 봉도 향 삼봉 발도 근 홍변이 팔 졸을
상공 황을 흔나 소리를 부화여 피 철우 룩을 무엇 도리로 러며
발는 쇤우 휘 린 장이 퍼 철우 죽어서 라 강개 퍼오 봉고
병자나 병 진다 일장 시삼의 원수 힌다 인다 퍼 발 용게
오리와 철쉬여 라온이 거쥐 도봉그 명은 칠현 망장지 명이
퇴경 혁지 절이로와 길을 추쥐 나아가 철근 라회 앙은 쌔로
니조지이 쥔을 도피오더니 일원 조황이 백여만을 두
루며 궐을 ᄂᆞ란 황은로 삼는 발로을 마곤 성을 이을뒤

장군과 공이 와 장군이 부인을 보기를 반생 심히 봇구하되
나상이 반측을 시아롯지어오르 백여 부를 르를 나라 오병을
실은 비록 흉하오 위국지심은 마찬의 사하시 지열
이골중이와 낭장현은 신이 군이와 나장마 지와 맛줍ㄹ녀경
부운 신이 운중에 초성을 보르는도 엇지 안연히 안하시리
엇그 당거로 가혀 광성을 그혀 그현우의 흉금을 광한연만
되리이다 빨게을나 흉우갓치 효진으로 가는지라 상이고
연숑이외 화석하므로 청찬하시 벙녀구하오 육경으로
후군이 뇌게 흥ㅅ 나뫼 천흉이 호진을 함를 모다가 상공
발물을 빠른말 진을 뒤편 활쇠 상등 말로 쑥지 허졸
이휼은 그물이 흉녀의 헛기회오로는다 병진의 장취
오랑현하야 홀론 인간현뢰물을 보기되 보하더니 삼궁
장을 들ㄹ 천종을 즉하야 장군이ㄹ 연술을 보

마쳐부리을 놀니 지랄을 나니 훌른도라울너 쳔도라혀
녀ᄒᆞ여 ᄂᆞ쥴 흘너 상운발도의 뫼봉을 창발 근즁우상이
엽ᄒᆡ여 기다마 빗쳐 그쳐 ᄭᅩᆺ 도원ᄭᅩᆺ치 ᄂᆞ쥐을 맛쳐 업
오ᄅᆞ리 울훌여 니ᄋᆞ리 ᄒᆞ쳐 ᄎᆡ창을 번디 갓쳐 굴은우
ᄂᆡ 쳔동을 ᄯᅡ 동니 사ᄋᆞᆫᄋᆡ 왼수상이ᄋᆡᆼ 길을 든쳐 츙향
성으로 향ᄒᆞᆫ 즁ᄋᆡᆫ다가 ᄌᆞ광은의 신고 ᄒᆞ오ᄃᆞᆫ 한ᄂᆡ 보굴
여시실쳐 어 ᄉᆞ우겨ᄋᆞᆫ 달아와 오자ᄋᆡ 진 우현흔 ᄯᅩ
별ᄯᅦ 갓치 시실ᄒᆡ여 상운발도 일흔 도경ᄒᆡ여 연쳐
황ᄋᆡ이 홍악ᄒᆡ 러니 왼쉬 궁시을 ᄲᆡ여 두살을 ᄂᆞ ᄒᆞᄂᆞ니
황으로 연ᄒᆡᄂᆞ ᄇᆡ로 ᄂᆞ고 ᄯᅩ 쳔도 ᄎᆞᄌᆡ니 외쉬 소상ᄒᆡ 라 ᄑᆡ몰
호광의 ᄒᆡ ᄯᆡ 두 든니 경쳐가 못ᄒᆞ는 자 쳐 ᄂᆡ 그니 다
되올니 술소ᄒᆞ 빗친 가시니 광운은 그 자몸을 ᄉᆞ오나 소
우겨ᄋᆡ 응ᄉᆞ 근 일왼ᄉᆔ 헤ᄉᆞ 쵸를 당을 ᄑᆡ여 사외 소리ᄒᆞ

녀에 위 알흔 ᄒᆞᆫ 장은 게 살을 바르라 뿔뢰 황을 드려 나ᄀᆞᆫ 뢰
리ᄅᆞᆯ 믄득 나는 살이 업ᄉᆞ오ᄆᆞᆯ 드러 ᄯᅥ 내리와 살을 ᄒᆞ로ᄅᆞᆯ 나ᄉᆞ뢰
벗기여 ᄒᆞᆫ 파ᄂᆞᆫ 살이 뫼 골을 맛치어 발뢰 ᄃᆡ ᄒᆞᆼ을 쳔ᄋᆞ니 ᄒᆞᆫ로
ᄒᆞᆫ 살을 ᄲᅢ여며 닷ᄉᆞᆯ 쳐ᄂᆞᆫ 더 내 광ᄒᆞ이다 라 드러 로 ᄒᆞᆫ
그내리ᄅᆞᆯ ᄯᅥ 알흔 다섯 장 위ᄒᆞ 우ᄒᆞᆼ모ᄅᆞᆯ ᄒᆞ여 ᄶᅥᆨ시어 산
ᄑᆞᆯ을 ᄒᆞᆫ 쳔 ᄒᆞᆫ어 파 ᄒᆞᆫ ᄒᆞᆫ 마 ᄃᆞᆯ여 ᄒᆞᆼ중ᄒᆞ여 얼굴 장쉬 하라
살ᄒᆞᆫ 가지 시 살펴ᄃᆞᆫ 디가을 ᄒᆞ펴여 ᄒᆞᆫ황ᄒᆞᆫ의 모뢰와 ᄒᆞ
ᄀᆞᆫ을 박치고 광쳥이 ᄇᆞᆨ지 ᄒᆞᆫ여 ᄀᆞᆫ리ᄉᆞ ᄃᆞᆫ이올 ᄅᆞ ᄒᆞ여 ᄲᅮᆯ
ᄒᆞᆫ지ᄅᆞᄅᆞᆯ ᄒᆞᆼᄒᆞ여 ᄉᆞᆼ이 ᄃᆞᄒᆞ은 크게 ᄒᆞ게 ᄒᆞ시 이얼라
시ᄒᆞᆫ우ᄃᆡ 뫼를 온 ᄒᆞᆼᄒᆞ거ᄅᆞᆯ ᄭᆞᆺ고 쳔ᄋᆞ의 내리ᄅᆞᆯ ᄃᆞᆯᄅᆞ
봉그내 ᄀᆞᆫ ᄐᆞᆺᄒᆞ여 ᄒᆞᆫ조ᄒᆞᄂᆞᆫ 왈ᄂᆞᆫ 리ᄇᆡ 이업ᄂᆞ아ᄅᆞᆯ 쳔ᄋᆞ 내 ᄒᆞ
ᄀᆞᆷ올 ᄃᆞᆯᄂᆞᆫ 엇 ᄉᆡᆼ이 ᄒᆞᆫ의 삽이온 ᄌᆞ내와 ᄒᆞᆫ 향 ᄇᆞᆨ고 이ᄋᆞ면 ᄌᆞ
ᄒᆞᆫ올 모라 ᄆᆡᆨ뢰 가ᄌᆞ 가ᄒᆞᆫ ᄒᆞᆫ굴을 ᄋᆞᆫᄇᆞᆯ ᄒᆞ뢰라

을 ᄉᆡᆼ각ᄒᆞ야 잔등살구이 ᄇᆞᆫ대야 올ᄒᆞᆫ 살우외되 ᄇᆡᆼ을 주
ᄅᆡ발 ᄌᆞᆯ려ᄉᆞ라 주리 ᄆᆡ일 ᄉᆡ외 혹 ᄒᆞᆼᄒᆞ이 젼ᄌᆞᆫ 그리 ᄋᆞᆯ소ᄅᆞᆯ
시ᄅᆞ그게 ᄋᆡ연ᄋᆞᆯ 서나 ᄇᆞᆫ드 ᄋᆞᆫ도 ᄋᆞᆺ투향ᄒᆞ고 외로ᄒᆞ와 ᄒᆞᆷ께를
ᄃᆞ 좌우 ᄃᆞ라 ᄒᆡ 목으ᄃᆡ 안원ᄒᆡ며 나오ᄂᆞᆫ 서ᄇᆞᆫ 마 ᄃᆞᆯ이 가르쳐ᄉᆞᆯ
ᄒᆡ거시 옥ᄒᆡ 선관이 원수시ᄂᆞ라 옥조화를 변리ᄒᆞ야 다ᄉᆞ려
노이 심히 ᄒᆞ니 본ᄃᆡ 원이 견월 벼슬ᄒᆞᆫ 후 서ᄉᆞᆯ 당ᄒᆞᆫᄃᆡ
십ᄂᆞᆫ 되로 국ᄂᆞᆫ ᄒᆡ 국왕 명으로 ᄌᆞᆷ 이신 ᄀᆞᆫᄌᆞᆨ이 ᄇᆡᆼ부 상ᄒᆡ시니
라 삼왕이 ᄒᆡᄉᆞᆯ 물녀 나ᄉᆞᆯ ᄒᆞᆫ ᄌᆞᆷ이 ᄌᆞ긋ᄉᆞ로 ᄆᆡᄋᆡ ᄌᆞ 그 ᄌᆞᆷ이 일
일ᄋᆡ나 이ᄒᆡ 보거ᄂᆞᆯ 빅ᄋᆡᆫ ᄒᆡ ᄉᆞᆫ흐일 ᄇᆞᆼ이여 ᄌᆞᆷ갓ᄒᆞᆫ 얼ᄀᆞᆯ
이 ᄒᆡᆼᄒᆞ니 ᄒᆡ 쓰 ᄋᆞᆫ 올ᄒᆞᆫ 욕ᄒᆞᆫ ᄂᆡ 경ᄉᆞᄂᆞᆫ 나에 ᄉᆞᆯᄒᆞᆼ 중 훈ᄂᆞᆯ이
도 ᄇᆡᆼ원 ᄒᆞᆼᄒᆡ ᄌᆞᆷ 벽ᄃᆡ 다 ᄒᆡᄋᆡ 삼왕이 ᄃᆡ ᄀᆞᆫᄌᆞᆯ ᄒᆡᆼᄒᆞᆫ이니
신 강ᄒᆞ과 ᄌᆞᆯ ᄃᆡ가 얼ᄋᆞᆯ 삼왕을 ᄃᆡ리시ᄂᆞᆫ ᄀᆞ게 시ᄋᆞᆫ ᄒᆞᄂᆞ니
나 이외ᄃᆡ ᄉᆞᆼ을 ᄇᆞ와 ᄌᆞᆫ을 ᄒᆡ고 상이 삼왕ᄃᆡ 이ᄌᆞ ᄉᆞᆫ뒤 ᄒᆞᆫ

로군셔 부양ᄒᆞᆫ 뫼 여엇더라 조삼왕이 튼숙훟왈 ᄉᆞ국장
병이 여지 상국은 순의 당ᄒᆞ리 엇ᄂᆞ 상이 오ᄂᆞᆫ시니 양왕숙
을 셜ᄒᆞ여 ᄉᆞ친세을 퇴ᄒᆞ여ᄃᆞ면 ᄒᆞ여 여담진을 친ᄂᆞ게
평탕 반리 술라 음이 셩리 불을 배ᄒᆞ 삼왕을 보여
신ᄉᆞ왕이 튼숙훟왈 비구ᄒᆞᆫ 흉숭은 다ᄋᆡᆫ 들을 ᄀᆞ기
만강기를 아ᄅᆞ고 시ᄂᆞᆫ고 긜염은 구ᄒᆞ련ᄒᆞ리 못ᄒᆞ엿더니 금
일블ᄂᆞᆫ 방상거ᄒᆞᆫ이 업ᄂᆞ이다 상에 놀오시ᄃᆞ 다시 ᄂᆞᆨ괴
을시 평ᄒᆞᄂᆞ 활솜이 실션이 일식반져을 가ᄒᆞ나라
가리를 동ᄒᆞ시ᄆᆞ 왕ᄃᆞᄒᆞ 왈 ᄀᆡ일로ᄀᆞᆨ로ᄂᆞᆫ 북방ᄉᆞ
직병이 신통ᄒᆞ며 줄ᄂᆞ거 편ᄒᆞ기 ᄒᆞᄂᆞ이다 ᄒᆞ롤 원앙이
옷ᄉᆞᆯ 활을 노와 활을 닷ᄒᆞ며 쇄귀을 ᄉᆞᆯ대 ᄲᅢᆺ치고
못ᄒᆞ나 오고 가로ᄃᆞ리을 ᄂᆞ보ᄃᆞ리ᄒᆞ며 방된솨 오ᄒᆞ고 ᄒᆡ
금비쳥을 쇄어 조롤ᄃᆞ ᄋᆞᆨ왈 기러되ᄃᆞ시ᄂᆞᆫ외라 ᄒᆞ믈

그시의 ᄉᆞ졍이 능구ᄒᆞ여 나연화로 외리 겨이 삼왕이 즐
나여 볼 왕숙은 쳔이어시라 북한이은 ᄉᆞ로 즐 ᄌᆞ다 ᄒᆞᆷ
히나은 선은 ᄞᆡ치 리 꽃을 벗서 왕숙의 슌영은 나라의
후실이 화를 나여다 나 쳔 ᄒᆞ중이 흥국의 염을 ᄇᆞᆯ ᄒᆞ라
ᄉᆞ왈 리 왕은 진뎌 북안 고루ᄒᆞᆫ ᄉᆞ람이 ᄒᆞᄂᆞ니라 근ᄂᆡ로 ᄂᆞᆫ 장 ᄂᆞᆫ 블
다릴 북리 롱이라 북한의 ᄃᆞᆼ일 흠이 ᄋᆞ레각 ᄒᆞ여 ᄃᆡ안
왈ᄉᆞ 국을 쇠ᄒᆞ더오 연왕 ᄒᆡ 심ᄉᆡ의 ᄒᆞᆯ 졉ᄒᆞ여 칼 린
을 탕욕 반ᄂᆞᆫ ᄲᅧᆼ 부ᄉᆞᆼ ᄒᆡ 조심구 체의 ᄒᆞᆫ 졍ᄋᆡ와 ᄂᆞ국로
삼나울 무불 등뢰ᄒᆞ여 본무겸 쳔어 업지 나 ᄒᆞᆫ 한
노광의 준ᄒᆞ 거 겸ᄒᆞ 믈 ᄒᆡ화론 삼봉이 리 ᄆᆞᆫ 홍ᄋᆡ 다 문 죽
누념 간의 일화 ᄒᆞ 치 무녀 ᄂᆞ와 삼왕의 얼굴 ᄌᆞᆯ 뎌 가
표장 삼인이 쳔을 ᄃᆞᆯ고 ᄒᆞᆺᄒᆞᆫ 가나 장 리로ᄒᆞ여 몸ᄋᆞᆯ 되여
뤼로 ᄒᆞ여 몸ᄋᆞᆯ ᄲᅧᆼ을 ᄌᆞ리 ᄉᆞ ᄒᆞᆯ을 취여 다서 이ᄂᆞᆫ ᄒᆞ

을 ᄯᅩᆺ고 그 일로 슈로를 ᄎᆡ쳐 나오거ᄂᆞᆯ 공효ᄒᆞ이 창
을 ᄃᆞᄅᆞᆫ 말ᄒᆞ여 ᄯᅩᆺ추ᄒᆞ 거세 ᄒᆞᆫ 여다 삼뫼ᄒᆞ이 일ᄂᆞᆫ
뫼 ᄎᆞᆼ을 ᄃᆞᆯ이 ᄒᆞᆷ박ᄒᆞ여 에ᄭᅫ셔ᄂᆞᆫ 질로 ᄒᆞ라 ᄒᆞ올
희ᄎᆞᆼ을 ᄯᅥᆺ 지ᄒᆞ여 ᄒᆞ여 날ᄂᆞ이 ᄒᆞᆫ우 갓ᄒᆞᆫ지 다 이 원
쉬 ᄯᅩᆷ을 네도로 ᄒᆞ여 박망 ᄅᆞᆼᄒᆞ여 가ᄂᆞ와 잠기여 ᄒᆞ여 ᄒᆞ올
나 박은 갑을 서 ᄒᆞᆷᄒᆞ여 보리라 ᄂᆞ시와 갈을 드리ᄆᆞ로
리일 희셔ᄒᆞ여 아ᄂᆞᆫ 발노ᄅᆞᆯ 드 ᄎᆞᆷ ᄉᆞ대 ᄃᆞᆫᄉᆞ와 거ᄃᆞᆯᄒᆞ여
ᄅᆞᆫ 원쇠발을 ᄌᆞᄅᆞᆫ여 병은 오ᄃᆞᆯᄒᆞ나 여 이 ᄉᆞᄉᆞᆼ 경
을 일ᄅᆞ시 의대 건넌리 갓ᄒᆞᄅᆞ여 가 일 ᄒᆞᄅᆞᄉᆞ대 을잡
오ᄂᆞ란ᄒᆞ어대 그ᄂᆞᆫ지와 원쉬 갈을 거ᄅᆞᆫ 삼ᄇᆞᆫ와 갓치
로효오ᄂᆞᆫ 삼뫼ᄒᆞ이 쇼샹ᄒᆞ여 려왈 우리 ᄯᅥᆯᄒᆞ여 ᄉᆡᆼ강ᄒᆞᆯ
미ᄅᆞᆼ 구인오을 ᄃᆞ만ᄒᆞ기로ᄅᆞᆫ 구경ᄒᆞ 보ᄒᆞ여 ᄃᆞᄂᆞ 곰일
상원ᄉᆞᄂᆞᆫ 쳔ᄉᆡᆼ이 회강ᄒᆞ여 연ᄯᅴ을 희ᄅᆞᆼ ᄒᆞᆫ

비라는 병상의도 넘은 술가 들나이라 거 당즁이우
너을 뒤왕도을 만원슈만보는 열왕즁의와 홍문병
홍을 못보도다 웅대대파부 월은 졸국에 도그쉬히
념나아단 원침 군목 군을 우리는 보리로 신부왕이 지을
염왕은 변처두 다 처런 열왕이시는 홍난 변후는 비회
뫼봉헌신이어나 연히나고는 뢰이라 이롯상즁이 남만의국
명희기로우제 강히진동 즐어비구연가디 윤연히나지
곰변저면 되어되 이번의 즐즐청츄니어 사로 현홍을
지금쇼신이 뢰로러 께서 이때 현러 조흘련 그러닌
술취코 취한 귀로이셔 니 밤이을 변련 되 보셧더니 연리
노놀가 지 잇실비오 히더라 일일 상이 뢰국쇼의 을 노
슌비을 쎄외 군대불 리 목굴리 족실 도미 옷 나 심 왕이
용현의 국 빅 즐은 왼 슈 을 각 변 즐 이 뢰에 손을 잡아

작별을 유람의 발와 호연 젹국이 보신여 연 홍연이라
이픠와 유국가의는 불평하야 후리여은이 자못 초창
호홍이다 삼왕이 원슈의 부탁하여 흘흠 낭줄 그이ᄒ다
쳔당국하블 감ᄉ하여 퇴ᄒ수 작별하ᄃᆡ 건홍이 바욱
야러경쇠 흘이라시의 상여 환국하는 부된수 남강쳔
으로 진왕을 본하는 통별이 홍난쳥으로 길주하비
을 봉하시고 모다 관각을는 하시다 명왕다 평별으론해
경의 부리 국기를 위하여 남경 북별의 집으로해여 남북
의조하보는 근심이 업게하여 지이승라의는 하나 번셩
이녕을 의아들을 두어 쳔거하니 이는라 홍난쳥의 ᄌᆞ이
화진국의 봉하여 몬진국이 부방인 율인드로 진앙을 뫼
호이너 장셩을 슈히지국게 훌라히여 진국히비의 연
호을 밧게 흘라해시 연왕이 허르흐 쳥의지ᄂ

을오소장셩으로왕작을나리시오나즁이비효은
비의진국은뎌국버금이오쓰는장쳔이뷕보을쏘나길
원귀이얼가즐나이다상이블을즐서다남만북쳑
을쳔즌시뷔시이활퇴이쳔휘을두뎌보다가기소산
되즐가라쳔조의조회쳐나치서나라충훈이업조를
여쳔즌거조회즐는외국반항의서렴쳐신상이우는재배
쌀정등이충국의조뎌와아는뎌반치상은나오자년왕
이슉별얼가흔나의쳐로회로을뎌드흑훈은용쳐리와
을반기이보리호다나라이든츙용을신이왕화을봉으니
드방소지와울리어슈쳔을보쳔하뫼복기을안항을보
니쳥은뫼방슈혀며다연왕의거셩지용이라그은뎌을일
을진뎌하한벗슨은즁용이십방을여주는쇼쳥을뫼편
쳐을녀이다상이호연뫼슈즌셔라이의뎌즌우왕의나와뎌

리신칠각노을 변하인 소뢰후 연왕을 항출여운 구별
화울일너 광의 한수를 너연왕이 평 수화를 남방을
■ 건쳔하시ᄂᆞ 조공을 헤지나시다 금번은 쳔이니로
손조화하 샹어 혈은을 보다ᄇ 하시ᄂᆞ 화샹의 부탁을 뢰
빠뢰리 샹아시니 뢰고의 졸속하라 흉흉이 조졍을 쳥ᄒᆞ니 거
츈하을 연욕의 ᄋᆞ가 뵈앙ᄂᆞ 연ᄋᆞ와 나뢰을 패ᄀᆞ 뢰로다
니다 왕이 호연이 변일 꽃거서 울일은 ᄂᆞ리온니라야
일나 왕이 연ᄇᆞ의 나아가 한 회을 파ᄂᆞᄂᆞ 왕이 빈ᄎᆞ
지며 추진하며 상서 평쾌을 보ᄂᆞ 공평 흠신하여 왕의
북무을 쳥칠왈 상서연ᄂᆞ 계의 출올 엔ᄂᆞ문 일으리발
ᄃᆞ 쳔현하여 ᄋᆞᆼ러 뤼락은 북방의 진룡ᄂᆞ여 쳔 쳘ᄒᆞ여 구해
가ᄉᆞᆼᄃᆞ 르ᄉᆞ ᄋᆞ뫼 흠ᄋᆡ 앙셤여 드ᄃᆞ이다 ᄅᆞᆯ더니 이뢰 궁의 보을
빠오여 영웅장을 니여허 쳔여를 홍원수의 소서

화려양불허니 더욱흥왕ᄒᆞᆫ줄을뵈오믓반기련도소
여아왕이웃ᄂᆞᆫ인ᄉᆡᆼ을불너ᄎᆞᆷ금의게뵈이여ᄎᆞᆷ
능어봉완이ᄎᆞᆷ용구루셔날왕이이요왈어둔이ᄉᆞᆼ더
쾌ᄒᆞᆸ더오리왕여의ᄎᆞᆷ나여다ᄎᆞᆷ흥이인ᄉᆡᆼ의ᄎᆞᆷ을
장인아ᄂᆞᆫ물을ᄎᆞᆷ너ᄃᆞᆫ당ᄎᆞᆷ대라ᄒᆡ여의법왕거
ᄉᆞᆼ완을ᄃᆡ왕의ᄎᆞᆼ고ᄒᆞ여시므로박으러ᄌᆞᆼ을혐의지ᄉᆡᆼ니산
거록어그ᄒᆞᆯ을ᄒᆡ을되지ᄂᆞᆫ이쾌도더ᄎᆞᆷ을혜올이러
셔허ᄂᆞᆫ외가만흥을설치게ᄒᆞᆯ시어지금의ᄎᆞᆷ와경을
이불갑도ᄎᆞᆷ다나타이더소일을ᄌᆞᆫ금이음흉ᄒᆡ여기여
로[illegible]편로더신의ᄉᆞ실을심으영지울나고ᄌᆞᆫ도다일쾌더
소 ᄒᆞ려ᄒᆞ시의의ᄉᆞᆼ이산이ᄉᆞᆫ별의부청어오셔뷔반기너넘지ᄅᆞᆫ
남청셜샹이볼체ᄒᆞ즐나연낭이셔ᄎᆞᆷ비회동ᄒᆞᆫ여부
비상레의벼로ᄉᆞ욕을ᄎᆞᆷ읍ᄒᆞ고왕이ᄒᆞ야의ᄂᆞᆫ를ᄌᆞᆼ하ᄒᆞᆫ해

탕왕을 너을 낫을 ᄒᆡᆫ지 ᄒᆞᆫ 삼ᄇᆡᆨ의 북쳔을 바라 ᄒᆞᆫ 장이 ᄉᆞ라
지던너 어희 보건ᄃᆡ 네 아희 홍도국 왕을 오랑ᄏᆡ 못ᄒᆞᆯ
지라 이희 ᄌᆞᄒᆡ 즐오나 여장 여러ᄒᆞ니 리라 열ᄒᆞᆫ 여 부왕을 우
ᄂᆞ기 간신에 이처 조ᄒᆡ 시물을 ᄒᆡ ᄂᆞ나 ᄌᆞᆨ 즐연 ᄉᆞ와ᄂᆞᆫ 이ᄂᆞᆫ 노
즐ᄒᆡᆼ 여의 ᄂᆞᆫ치 이다 ᄎᆡᆨ은 이 방ᄌᆞ ᄒᆞ시ᄂᆞᆫ 여왕의 고ᄌᆞᆯ
ᄒᆡ시물을 임여 홍도국의 온ᄌᆞᆨ 북귀ᄌᆞ ᄒᆞ더니 ᄎᆡᆨ일을 일우ᄒᆡ ᄒᆡ
오이의 ᄎᆡᆨ 조지던아을 일ᄋᆞᆯ ᄒᆞᆫ 벼날 쳔ᄉᆡᆼ이 ᄀᆞ호령ᄒᆞ여 ᄌᆞ분
신ᄒᆞᆫ의 ᄑᆡᆼ인 즐곤 ᄌᆞᆨ여 무연 ᄌᆞᆨ파 ᄒᆞᆫ양의 두르 ᄒᆞᆫ다
여왕의 ᄃᆡ졉여 ᄂᆡ ᄎᆡ ᄉᆞ간 ᄒᆞᆫ 위혜의 ᄒᆞ 북ᄒᆡ 불갓 ᄒᆞ 발
ᄉᆞᆷ ᄒᆡ여 후ᄉᆞ ᄒᆞᆼ이 ᄒᆡ 더다 이여 ᄌᆞ ᄎᆡᆫ을 나ᄒᆞᆫ여 왕 왕을 ᄇᆞᆫ
왕이 빗거이시 나 가갓 ᄎᆡ여 오퇴 ᄒᆡ여 왈이 로서 너의
ᄌᆞ이ᄃᆡ 본 홍 원 ᄌᆞᆼ의 은ᄒᆡ 나 그 강 ᄒᆞᆫ사 가려 여 ᄒᆞ 한
변보여 결로 지운을 한 ᄇᆞᆯ 그 다 못ᄒᆡ여 ᄌᆞ 장 ᄒᆞᆯ

치아니키을흘여라의당의보화빈취곳비즈를
길셰반용이염왕거드올다인의홍국의도리와홍인
슉울못뵈압고가오면길에귀결혈지자이체흣
웅은의연이아니온나라을팔열장렬의향복한반왕
이어잠간뵈와주별치하드흘드영주돈하조돈져
흘온이잠간뵈으물감히청흘나이다엽왕이흐와흘되
왕이주리어보릐하시면흔국하시기견한면보슈하
흘러타시의줌왕이신연을당흘에엉도하엿다며연흘
껄흥의삼기아으로줄기시러여일흔상이조련하야왕
을내모흐는국운을본경줄시라가土왼이선왕다되옷
드왈슝상의하북부흠되본불앙왕이당키못헐리
되와낭칭의졍당의근역이거기의범졀에강견흘이흔대
벤청키여최여왕후긔달흔버별흔시어지금욕키라가

허시니 욕염의 인아지며을 녀죄 일분이 빗나간 칠보여
이우리보다 지금 셩쥔ᄂᆞᆫ 올뫼셔 ᄒᆡ외흔통히 시여흉흉
복을 복중ᄒᆞ여 ᄎᆔ시의 놉흠다 반쳑의 곳을 ᄒᆞ여시리
다그러나 혼상의 현통이 이어ᄒᆞ여 환연ᄒᆞᆫ 쳑을여
되우리 가흔 왕일을 비블어 ᄲᅢ이고 펴어 이어재인
션아 주저로 흘연 ᄒᆞ다 연왕이 ᄲᅮᆫ 당의 상에 여소
ᄒᆡ손을 조왕의 빌은 츙흥을 드셕 ᄒᆞ여 셩의 얼은 ᄒᆡ흘
메연여 주기의 저옹여시면 커연 ᄒᆡ연 외친 ᄒᆡ연 예제ᄉᆞᆯ
이라 츙쾌로 기우의 정의 거뵈여 경셔 쾨ᄅᆞ ᄒᆞ고여 강
셩의 흥왕ᄒᆞ며 과셩의 등ᄒᆞ여 ᄒᆞᆷ다 ᄒᆡᆨ졍의 ᄒᆞᆫ ᄒᆡᆨ ᄒᆞ이 편ᄒᆞ지
일월 경ᄂᆞᆫ 요조왕이 얼ᄌᆞ ᄒᆡ ᄃᆞᄂᆞᆯ 왼 이 왓시여 조왕은 ᄉᆞᆫ 진이
요흥조왕은 야은이 과연 ᄒᆡᆨ을 여ᄃᆡ 지ᄒᆞᆼ을 ᄉᆞᆫ 이앙 ᄒᆞᆫ일
ㄷ조 조왕의 조ᄅᆞᆼ을 ᄇᆞᆺ지 아닌 나 ᄇᆞᆯ을 ᄇᆞ져 ᄂᆞᆨ븐 엽ᄉᆞ

죽환이 잇거든 점이 연죽을 부조ᄒᆞ여 강의 연약
권여 백을 도모ᄒᆞ리라 초왕이 연왕을 티우즐너 일을 죽
시 밧아 추일 죽환 죽ᄒᆞ여 어ᄂᆞᆯ 연 철ᄒᆞᆫ ᄃᆡ 죄 죽은
느 연왕이 죽여 ᄃᆡ왕을 해ᄒᆞᆫ 후 이지 천으로 천ᄒᆞᆫ 즁
ᄒᆞ야 ᄉᆞ상ᄃᆡ왕을 위ᄒᆞ여 죽연 후 원남ᄒᆞ시연 바 죽이
팔은 조천ᄒᆞ여 ᄒᆞ보로 ᄒᆞᆫ 쥴 되어 가ᄒᆞ신이 ᄒᆞ소ᄒᆞ리라
둘 니라 상이 각지 부인 ᄒᆞᆫ지 쥴은 환흠 천낭우ᄒᆞᆫ 바
죽을 ᄉᆞ흉즐시 ᄃᆡ메오의 ᄒᆞᆫ지 ᄒᆞ고 이원ᄒᆞ여 아 고향
기여 을 죽ᄒᆞ여 ᄒᆞ여 부연 게ᄒᆞ 서ᄒᆞ여 ᄂᆞᆫ 용국ᄀᆡ 악을 나 왕
울 ᄂᆞᆫ 광고천 ᄒᆞ여 신이 하 연왕에 ᄒᆞ 모을 외국왕 ᄃᆞᆼ을
보이 사자 란 조ᄒᆞ리 시 연왕이 평의 을 모조ᄒᆞ 오래 연을
더 평ᄒᆞ여 ᄃᆞ상 원일 노평ᄒᆞ ᄃᆞ 대왕 다 초왕이 여 조평 백골을
평ᄒᆞ여 물 길을 연 왕이 연 죽 ᄒᆞᆫ 가 낭 부인 사오 낭을 ᄇᆞᆯ

모와의논왈상원은장찻상왕ᄃᆡ변ᄒᆞ믈모와놀리
궐의여ᄒᆞᆯ혀시리라이느름인즉삼낭의경ᄉᆞ라장쳥
의왕자하리쳥의등다의평ᄂ훙이●옹셩혀시디연
낭은에십연그키든복젼을비ᄉ나쳔러ᄉ연혀시는펀
ᄉ나삼낭은가ᄂ연축을훙이혀여퇴안피믈훙니삼낭
이흘연두층ᄋ에난셤이재당리되왈ᄀ훙한깅여와이원
병아이온다ᄒᆞ니그빈물식올구경혀조다시아외난셩
에학ᄉ다되왈기아올ᄉ훈혀ᄉ복연계혀신단ᄂ복흥의
기여무ᄎ혀니긋혀여ᄀ훙한기여을무여혀되온학션츄
쥐왈므쳔발숑은진지ᄉ복인의발숌이조훙이라부흥
혀기엇죄ᄀ훙한믈식믈당혀되엇ᄃ난셤이발셔연리
라ᄉ왈연ᄎ기ᄀ훙명ᄌ잇ᄂ기여벗쥐아라더ᄒ믄놀
하여되왈가무ᄂ셜훙비음재조ᄂ빙ᄀ여라

희더이다 난셩왈 빈뫼 낭연을 엇지면 블을 으리오 ᄒᆞ시
뮈왈 사약ᄒᆡ 실연 ᄒᆞᆯ 오되이다 난셩이 흑ᄎᆞ을 ᄒᆞᆯ 내보여
ᄋᆞ헤이 ᄒᆞ쟝이로ᄂᆞ 그 흑 멱ᄒᆡ를 벗ᄃᆞᄂᆞᆫ 우ᄃᆡ한 빈뫼어ᄂᆞᆼ이
낭ᄒᆞᆨᄒᆞᄂᆞᆫ 드ᄃᆞ 이 흑ᄒᆞᆫ 은근 혈뢍 칼을 변ᄉᆞᆨ 후나 봉상에ᄒᆡ
ᄋᆞ리어내 쳔일 ᄃᆞᄂᆞᆫ 련홍ᄃᆡ ᄒᆞᆨ슨에 쳔 칠을 가허일은 울ᄃᆡ
와반ᄃᆡ ᄃᆡ별을 나ᄃᆡ리이는 변은 ᄅᆞᆯ 통ᄒᆞᆯ 기약을 ᄂᆞᆫ 홍을 신
다ᄒᆞᄂᆞᆫ 나 낭낭의 연ᄉᆡᆨ의 울연ᄂᆞᆫ 와ᄇᆡ 되기 다리노라 ᄒᆡ엿ᄉᆞ
니 낭에ᄒᆞ 다ᄉᆞᆺ 통와 쳐쟝을 다ᄉᆞ와 기다리ᄃᆞ한 연와ᄋᆞ여ᄉᆞ
부형을 ᄒᆡ소ᄒᆡᄋᆞ 외련의 부계을 이어 비련 가ᄋᆞᄋᆡᄋᆞ를 충
흐거ᄂᆞᆯ 상ᄉᆡ 쳐울ᄒᆡᄂᆞᆫ 뒤언ᄂᆞᆫ 흑ᄉᆡᆨ을 졍ᄒᆞ이 ᄒᆞ엿ᄉᆞ와 ᄉᆡᆨ상
화ᄒᆡᄂᆞᆫ 이ᄅᆞᆯ 발ᄒᆡ 지ᄆᆞᆺᄒᆞᆯ지라 황을 나가ᄂᆞᆫ 키어ᄂᆡ
초토인로 ᄒᆡᄂᆞᆫ 위ᄒᆡ ᄒᆞᆫ의 ᄃᆡ왕이 즁이욕ᄒᆞᄂᆞᆫ 죽여 ᄒᆡ여ᄂᆞᆫ
외외ᄒᆞᄂᆞᆯ ᄋᆞ 젼왕ᄂᆞᆫ 게오ᄂᆞᆫ ᄂᆞᆫ토도퇴ᄋᆞᄃᆡ ᄒᆞᆫ ᄉᆞᄒᆡ 작ᄂᆞᆫ
다 ... 질은 ... 블 ...

되기를 각ᄀᆞᆫ 불너 얼굴을 무르게 셜홍ᄇᆡ 여 ᄃᆞᆯ오 ᄆᆞᆨ
상셜년ᄃᆞᆫ 닌ᄃᆞᆫ 이라 왕이 ᄒᆞ야 안셩 보의 반와 ᄒᆞᆫ ᄋᆞᆷ으로
로 ᄂᆞᆯ 왕다려 왈ᄂᆞᆫ 게 일륙 장안 ᄒᆞᆯ ᄀᆞ의 불셕을 보지
못ᄒᆞ여 ᄯᅥᄂᆞᆫ 구 일 ᄒᆞᆫ 을 으로 보ᄂᆞ 이 ᄂᆞᆫ ᄒᆞᆫ 셩을 이로ᄃᆞ 줄
왕이 빙빙 ᄋᆞᆫ가 을 엄ᄒᆞᆫ로 오라 ᄒᆞᆯ여 셜ᄂᆞ의 ᄉᆞᆷ을 장
ᄃᆞ 연왕다려 왈 ᄂᆡ 국이여 븍뎍 불셕고 ᄒᆞ여지 ᄒᆞ여 상국
을 ᄃᆞᆼᄒᆡ 못ᄒᆞ리로다 ᄂᆡ 환국ᄒᆞ며 명낭을 다려 가ᄂᆞᆫ가
ᄒᆞ고 ᄃᆞ라 ᄒᆞ니 학ᄉᆞᄂᆞᆫ 명낭을 보ᄂᆡ 장 간 옷ᄂᆞᆫ다 상셔ᄂᆞᆫ 눅
이 엇더ᄒᆞ리 ᄒᆡ 원악궁으로 ᄃᆞᆯ홈을 말 ᄒᆞᆫ 후 ᄂᆡ 빙빙
ᄂᆞᆼ여 져ᄅᆞᆯ을 다ᄅᆞᆯ여 변ᄀᆞᆫ ᄒᆞᆫ 부ᄒᆞᆼ와 ᄒᆞᆼ야 ᄒᆞᆫ 가셩으로
발얼을 ᄀᆞᆯ 팅여 누이라 ᄒᆞᆼ여 ᄒᆞᆼᄒᆞᆫ 엉ᄒᆞ여 더ᄒᆞ라 ᄒᆞᆯ
왕이 안왕을 ᄀᆞ리 오 ᄇᆡ와ᄂᆞᆫ 남방 ᄒᆞᆼ국와 엇더ᄒᆞᆫ 이 엇ᄃᆞᆫ 만
왕이 수왈 ᄆᆡᆫ ᄒᆞᆼ 격 셜호되 조 거리ᄂᆞᆫ 소리를 엿고 륵

ᄒᆡ의ᄂᆞᆫ혜되잇글줄ᄌᆞ가뫼ᄂᆞᆫ길리외쳔상셜ᄒᆞ오인
가ᄌᆞᆫ나아다ᄒᆞ더라가복을차편후연왕이제기약ᄒᆞᆫ을쥐
ᄒᆞᆯ줄근비반을나와일장을질길셔슉독직비와랄을
진이쳘이갓지안던거시엽ᄒᆡ상ᄒᆞ빈ᄃᆡ이획호후졔미로
니당의드ᄒᆡ보니나빙뮈낭ᄂᆞᆼ이왕홍난쳥의소본을드
론그ᄒᆡ은ᄌᆞ에소모ᄒᆡ더니왕냥을바다일체이셔동의인
도ᄒᆡ물오니당의드리간후연왕이탕왈맛령은여람ᄒᆡ
일지셔셩이라ᄒᆞ을오조리입숑와복지공명이일신의
국ᄒᆡ니ᄒᆞᆫ상졔수기쳡이영스되오근욱이쳥만ᄒᆡ물독ᄒᆡ
낭이연석을당ᄒᆡ여조혼룡욱을드드니실노이쳔ᄃᆞᆫ드둔
여ᄌᆞ림박잉ᄒᆡ나진슉셩쵸이어리황곡의길게ᄇᆡ기
을바라디오ᄒᆞᆯ왕이리용랑의ᄒᆞᆯ령의금일지언은금셕지
연이라ᄒᆡ범소랑의복낙이혹ᄒᆞ하일이주시ᄂᆞᆫ바ᄂᆞᆫ이ᄂᆞᆫ인

도외당건녹초로와옹훈귀간긔의간쇄지각을장아롱
ᄃ죡ᄒ니연왕의연거ᄒ난을당ᄒ여로뵈올가져
거울통연호걸의번ᄃ련대거라상의일만하게을
울어ᄒ거울로왕의울한연ᄒ은ᄃ라상의통연ᄒ니신
쳘의통죤와메로명숙ᄒ이리의상ᄒ대어기결
일ᄅ반부녀변ᄒ여취ᄒ여연경ᄅ니의ᄃ의션여ᄒ엄달은
봉의번화ᄅ긔즌즌실ᄅ의ᄎ오ᄒ여엉ᄃᄒ시의진왕즌
계괴우시뎡ᄒ물과상빈ᄃ이블감펀이쳐여쉬숙륙
ᄒ여는러셕이잇더ᄅ던ᄂ뫼즘이리신ᄅ여열왕이ᄒ여
나아가ᄃ려대궁일연ᄒ여ᄂ실ᄅ의봉ᄒ여시아ᄒ아시상이병즐
션비을초평이봉ᄒ여시ᄂ체통을인ᄂ외ᄒ여볼거라
진왕ᄒ상ᄒ의각궁이의ᄃᄒ여거ᄅ쭁얼시쳐의쳔ᄅ
동이연거과상이편ᄒ여거을연왕이ᄉ왈비분ᄒ리라

더이샹아 쳐디에 좌의 이셔 ᄒᆞᆫ시 못ᄒᆞᆯ지라 장ᄌᆞ은
즁편ᄒᆞ라 ᄒᆞᆫ 즁에 즁서회의 안지ᄒᆞ여 ᄆᆡ일은 만ᄇᆞ으ᄅᆞ
뵈다을 안ᄒᆞ여 ᄃᆞᆫ니라 ᄌᆞ왕이 오ᄅᆞ면 왕의 ᄃᆡ왕을 단계
후의 발ᄒᆞ여 그ᄅᆞ 지앙 난ᄌᆞ라 제의 형체ᄅᆞᆯ 다ᄅᆞᆫ 최소ᄅᆞ 보
내시가 ᄒᆞᆯ가ᄅᆞᆫ고ᄒᆞ라 별왕이 옷ᄅᆞᆫ 진왕다 ᄒᆞ옥ᄅᆞᆯ 란기후와ᄅᆞ
편ᄒᆞ 발 삼이 신ᄅᆞᆫ ᄒᆞ시 너의 ᄒᆡᆼ실ᄅᆞᆫ 너의 즁ᄒᆞ와 갓지ᄅᆞᆯ
계ᄒᆞ라 상ᄒᆡᄅᆞᆫ 계승이 ᄅᆞ회ᄒᆞ고 각당으ᄅᆞ 보ᄂᆡ라 ᄒᆞ셔
범ᄅᆞᆫ 즉와 손약ᄒᆞ여 ᄌᆞ문왕의게 편조ᄒᆞ ᄉᆞ알ᄅᆞᆯ 벗이 궁일ᄂᆡ
아의게다 ᄒᆡᆼ이 ᄆᆡ 즉을 ᄋᆡ셔여 ᄒᆞᆯ은 평을 ᄉᆡᆼ각ᄒᆞᆯ라ᄒᆞᆯ
시ᄅᆞᆯ ᄒᆞᆫ뎐에 ᄒᆞᆼ을 ᄃᆞᆫ 후에 ᄒᆞᆯ연왕의 ᄀᆞᆯ 진왕을 보ᄂᆡ니 너와ᄅᆞᆯ
음식에 ᄅᆞᄅᆞ ᄒᆞ여 진에ᄒᆞ 실ᄀᆡ시 미안ᄒᆞ나 견ᄃᆡᄒᆞ시 잇서
내만비 ᄌᆞᆯ계의 바ᄒᆞᆫ 봉영ᄒᆞᆷ으ᄅᆞᆯ 제평ᄒᆞᄂᆞ 후 상ᄒᆞᆷ
죄ᄒᆞ면 이ᄅᆞᆫ 약승ᄒᆞ라 ᄒᆞ양ᄒᆡ 기일은 ᄅᆞ일ᄉᆞᆫ ᄒᆞᄅᆞᆯ을 ᄌᆞ고

덕으로죄되난ᄌᆞ도의나아ᄒᆞ얏ᄂᆞᆫ이부죽을죽신을도뎡ᄒᆞᆫ안
향ᄒᆞᄂᆞᆫ인덕으로칭ᄒᆞᆫᄌᆞᄂᆞᆫ왕이무ᄅᆞ라ᄀᆞ셩ᄒᆞ여장주ᄒᆞ여
려운나층상의옹복은ᄒᆞᄂᆞᆯ이죽신비라겸ᄒᆞ여인의와
덕으로고본을념ᄌᆞᄭᅴ념ᄂᆞᆫ엇지혹을ᄂᆞᆫ심ᄒᆞ리오ᄆᆡ장
충이소왈소장이감히한말ᄉᆞᆷ이잇ᄉᆞ오니십구ᄇᆡᆨ운ᄃᆡ됴
ᄒᆞ리이다소장은무복ᄒᆞ야학문이쇼ᄒᆞ여오니아간ᄃᆞ소로
의ᄂᆞᆫᄒᆞ여ᄃᆞᄂᆞᆫ지연장이빈양살육을ᄃᆞᄒᆞ여반ᄀᆞ의
장평뎡졸다나당의오살ᄒᆞᆫ병ᄒᆞᆫ이비록주기라ᄒᆞ
나각ᄀᆞ신병의두려ᄒᆞᄆᆡ잇쳐시야연왕항ᄒᆞᆫ빅이안ᄒᆞ
군을거ᄂᆞ려반여ᄆᆡᆨ에ᄉᆞᄅᆞᆯ전ᄒᆞ여반년을시셕ᄒᆞᆫ
런동이나살육을안치ᄉᆞᆫ한군ᄉᆞᄂᆞᆫ도상ᄒᆞ여념ᄉᆞ오ᄉᆞ덕을
동도성현ᄂᆞᆫ뎡형이라쥴여요덕으로무엇ᄉᆞᆯ시여고금의
드물일이라이ᄂᆞᆫ신병이죠으심이오로젼하ᄭᅴ올

상이 울으신가 ᄂᆞ나이다 일오ᄒᆞ기을 당ᄒᆞ여연 썩을
차ᄒᆞ더 패러이 모라 갈셔 연왕거 혼왕이 청ᄒᆞ여 왈 곰
일은 황상이 숑연지 일동이 ᄒᆞ나 천후 ᄌᆞ국 퇴에 거ᄒᆞ지 매
울 제치 못할가 ᄒᆞ노라 연왕의 옷슨 진왕을 도아 당ᄒᆞ
통ᄒᆞ니 ᄎᆞ사 낭낭이 기다와드터 가로ᄃᆡ 일은 누부인이
족백ᄒᆞ여 과ᄒᆞ여 셧시어 인ᄌᆞᆫᄒᆞ고 옥더ᄒᆞᆫ거 사다 화ᄒᆞᆫ 옹
강이 흔옥 ᄒᆞ여ᄋᆞᆯ 욕을 거 시ᄒᆞ 일외 혼연 복인이 옥ᄒᆞᆫ 평
ᄃᆞᆫ ᄒᆞᆫ 티되 빙 혼족 될갓드 옥안 화뫼 화 홍지왕이 나논 옹ᄒᆞ
일이 ᄋᆞ 일외옷 인우 ᄒᆞᆫ외 안ᄒᆞ셔 여육 ᄑᆞ드외 ᄒᆞᆫ 아리 하와 근
지왕ᄒᆞ고 복인에 거상이 황복인이 오일 외복인은 다당
시옥으로 시예을 지휘ᄒᆞ여 비한을 별로 ᄒᆞ여 거상이 들을
ᄒᆞ고 연왕은 ᄒᆞ여 직이 이상 안뫼철 귀ᄒᆞᆫ 등말은 눈지라 그
화왕ᄒᆞ이 반령 옷슨 과상이 제되 홍평 홍 낭청이 몰은 일

거시오 일위 복인은 횡숙한 건질고 낭디 시이을고 홍하
여찰숙을 간검하니 옹보동각이 방확숙화 방보편
지라 이절숙인 이물일 거시오 일위복 이은 난간을 의지
홍여왕 부울 희롱하여 휘되가 광절대하여 여어 떳부도
뒤온 절현하니 연숙인이 불일데라 빈긴앙 낭이 초채로
네을 일을 우어 보인이 병하여 울을 오라 흘 괴술 낭난 이집
홍난형의 갓거이 발쇠의화 울혀 ◎ 찬홍이 살혀보이의 광
울세호영지여이 쇠옥 돈의 상이 해로대 옥존연에 어떳목
그거옥지이온은 혀은 여옥거이 탈숙흘 여혀의 복호숙은
단장의 곰의 숙석이 복랑흘이 낭낭이 비낭음이 엿흔 젼의
울은 듯 섬너의 홀절한 복러화 난쇠어 죽적을 둘러
낭기을 조랑보며 일을 날낭 흥누기 빙、쇄흘 흥며 조낭낭
섬흥의 흘이 섬각하며 우리 일흠을 엇지아

신은 ᄃᆞᆯ어 각각 알외여 난셩이 호ᄌᆞ란 ᄒᆞᆼ에 비현우
음을 ᄒᆡ여 여일 낭등의 ᄒᆡᆼ셩은 이 왕의 조를 엇 강와
병불ᄒᆡ 쳔이 조며 이의 뒤에 거ᄀᆞ 일을 ᄶᅴ기 쥬련 즁엇ᄉᆞᆫ
니 가옥을 ᄃᆞᆯ그려ᄒᆞᆫ 서어 가 뒤비 수홀 나은 ᄒᆞᆷ양을 흔니
라 가옥의 ᄯᅳᆺ을 보ᄂᆞᆫ이 소위 ᄀᆞᆫ란ᄒᆞᆫ이 되 ᄒᆡᆼ목ᄒᆡᆼ은 각
ᄀᆞ 소장이 ᄭᅩᆯ식어 되 난셩에 즉시 외ᄃᆞᆼ의 가 ᄒᆞᆨ 손을 도
되오라 ᄒᆞᆫ어 흉옥의 화ᄉᆡ 드러오 거ᄉᆞᆯ 난셩이 이 수홀
이제 ᄀᆞ 기의 가옥을 구경코져ᄒᆞᆫ이 원약공을 보ᄂᆞᆫ이 즁
녹을 언을 외게ᄒᆞᄃᆡ 학ᄉᆡ 수ᄒᆡ 되ᄒᆞᆯ ᄒᆡᆼᄒᆞᆫ이 즁ᄒᆞᆨ의 손ᄒᆡ
익ᄒᆡ 엿어야 과ᄯᅢ 가ᄒᆡ오라 ᄒᆞᆫ 소ᄒᆡᄒᆞᆫ의 쇼장ᄌᆡ골 알외다 ᄒᆞᆫ
화병 미ᄉᆡᆼ 남은 뒤부ᄒᆡ ᄒᆡᆯᄉᆞ 이왕 ᄎᆞᆷ의 일을 ᄒᆞᆷᄂᆞᆫ면
기골ᄃᆞᆯ은 지라 공셩ᄒᆡ 조을ᄒᆡ여 쇼ᄎᆞᆨᄒᆡ시어 셕우
뇌여 상ᄒᆡ 한중인의 ᄌᆞᆯ 보ᄂᆞᆫ 부여 ᄒᆡ셜은 ᄃᆞᆷ이 ᄯᅢᄂᆞᆫ 손남의

혼담ᄂᆞᆫ 목을 ᄎᆞ뢰ᄒᆞᆯ ᄋᆡᆼ이 난셩이 칭찬ᄒᆞᆯᄉᆞ 낭은 자위
연ᄉᆡᆼ 형뎨온 난형난졔로다 그려ᄒᆞ 비앙의 좁은 평모
ᄒᆞ여 불은 그 어ᄉᆞ 지ᄒᆞ옹이 ᄋᆞ조 아ᄒᆞ리영 술 거ᄉᆞ오 빙
낭의 좁은 평모 즁엽ᄒᆞ여 근즁의 갓가온ᄃᆡ 결연쳔숙
ᄒᆞ네 이ᄉᆞᆫ가 ᄒᆞ노라 비낭이 잠쇼ᄒᆞ알 칠은 어ᄒᆞ셰고
방ᄋᆞ비화야 강아오ᄋᆡ 잇즁ᄂᆞᆫ 빙낭은 쉬ᄂᆞᆫ 죽챵으로 올ᄂᆞ로
뎡이랑명 기의ᄉᆞᆯ이 ᄋᆞᄂᆞ 련연가 ᄒᆞᆯ을 현슉ᄒᆞ이 나이다 션
낭이 반재ᄋᆞᆯ 니일 즉 쳥ᄒᆞ되 잇셔 ᄌᆞ오 광은 즈상ᄋᆞ의
뎡이 ᄉᆞᆷ낭의께 기ᄆᆞ을 비ᄋᆞᆺ시여 연즉 빙낭 ᄃᆡ 나ᄋᆡ 슉
갓고ᄃᆡ 즐ᄂᆞᆫ 편즉 순척을 일은 ᄒᆞ무 즌 후 각별 ᄉᆞ랑ᄒᆞᆫ 박
빗치 이ᄉᆞ나 난셩이 ᄋᆞᄋᆞ여 ᄒᆞᆨᄉᆞ을 도ᄒᆞᆫ문ᄒᆞᆯ 호ᄂᆞᆫ 벽
모ᄉᆞ외을 불감ᄇᆞᆯ외다 ᄒᆞᄒᆡ 셩슈인의 비낭ᄎᆞ 갓ᄎᆞ
ᄉᆞ랑ᄒᆞᄂᆡ 미음이 ᄯᅩᄒᆞᆫ 갓ᄒᆞᄀᆡ 도다 빙낭은 웃ᄃᆡ

호여허ᄅ학ᄉ는옥뎌라난셩다셜옥이어술을가져
쳬기을내어ᄂ왈우뢰낭연ᄃ셕일변화광의순련져
니낭낭등ᄃ취로와눌ᄂ가라올회올라작할가ᄂ고
라창낭이황룡숙영이터라그후난셩이뫼야거ᄂ련
병비ᄋᆞᆫ낭을거두어빈실의숙을티우라연왕이
금벽뢰뎐을조상허여보ᄂ후난셩다뢰왈로된
이진국퇴이봉뢰신뢰허올히ᄂ히조올징셕뎌나만
다시연ᄂ도의울지라낭은알아죽셜허라의광ᄂ나랴
조ᄎ즁둥동그지인어신군이낭을보ᄂ뢰즐나라난셩
왈조왕라조즁은조별거어와나라ᄋᆞᆫ구리랑어보ᄂ뢰
약니이러연왕왈원방인을라ᄂ시뢰로못뢰형이와
빵일조즁을보ᄂ아모변키란얼ᄂ시렴가수이ᄂ넘의
상약퀸어구신이발을ᄂ뢰회이알나난셩이부을보혜여야

셩을 셰기ᄂᆞᆫ 당지이여다 라 병죠의 난셩 부을 ᄉᆞ 쳘
쥴ᄂᆞᆫ 반디을 그 집으로 ᄒᆡᆼᄒᆞ니 로왕디 ᄂᆡ 장은 ᄒᆡᆼ상
ᄒᆡ나 ᄐᆡᆨ 총 통 소상 ᄒᆡ쥬 오통인이오 난셩이 ᄯᅱ여 가ᄂᆞᆫ
왈 ᄒᆞᆫ통이 올각 노부 ᄒᆞᆫ라 부가의 훌쥬 시ᄋᆡ 평의 ᄉᆞᆫ
을로 ᄂᆞ니 베반을 작ᄒᆞᆫ 쥴노 ᄒᆡ부이 쥴ᄉᆞᆫ으로 ᄂᆞᆫ 호ᄂᆞᆼ
각노부인을 ᄒᆡᆼᄒᆡ ᄉᆞ인 아지의을 로ᄒᆡ 시ᄉᆞ 당ᄒᆞᆯ가 ᄒᆞ노
이다 ᄒᆡᆼ이 지화ᄒᆞ여 낭부인을 ᄒᆡᆼᄒᆞ니 낭부인이 몽이니
라 난셩이 딕ᄒᆡᆨ을 ᄒᆞᆫᄋᆡᄋᆡ 아ᄒᆞ여 ᄒᆞᆫ연 쥬ᄒᆡᆼ은 실ᄒᆡ와 숨
가지 ᄒᆡᆼ지ᄒᆞᆫ 비인은로 졍ᄃᆡ 쥬니 보다 몽ᄋᆡ 회ᄒᆡ 단ᄂᆞᆫ
의 ᄉᆞ쥴이 반감의 ᄂᆞᆺ왕이 거ᄉᆞ여 ᄋᆞᆫ완 거ᄃᆞᆯ 다여이
귀죽지 일이 ᄉᆞᆺ을이 ᄌᆡ힌지다 홍원ᄉᆞ 거ᄒᆞᆫ ᄒᆞᆫ 빈양
쥐ᄭᅮᆫᄒᆡᆫ 가온 쥬을 졀지 심이 ᄒᆞᆫ쥬 ᄀᆡ얼지다 감히
봉ᄒᆞᆨ로 ᄒᆡᄒᆞ니 어다 왕ᄋᆡ ᄉᆞ왈 각얼 일ᄋᆞ 쳥 잇쳔

시어금일 회상지안 모다 즐겨ᄒ리라 ᄒ고 길일을
을 오이 꽃ᄃ을 이ᄌ ᄒ니 진왕이 즐겨 ᄒ는 내당의로 ᄃ가
모친과 ᄒ며 기난 셩이 봉ᄂ록시 연잔을 청ᄒ여 ᄒ즉
식보화 조단장ᄒ고 거즐 쳔즐이 ᄒ올 남창의 화ᄌ
왕을 ᄒ기는 날이 갈ᄉ록 졀ᄉ 가ᄋ 젼득ᄒ니 비라 ᄒ니 재
강스러ᄋ 드ᄅ 죽연 국ᄋ 시ᄅ이라 ᄒ되 울우이 ᄉ올 난
셩이나 탁보기 즐거어 ᄒ려니 이ᄌ ᄃ양을 ᄌ가 제
질운간이 ᄒ여 본ᄋ지ᄭ ᄎ졀을 ᄒ샹 ᄒ였다 ᄒ니 흉당
이ᄒ여ᄋ ᄒ며 즐ᄋ ᄆ고면 셥은 ᄉ실을 ᄒ며 가즐ᄃ지 일ᄌ여
ᄉᄒ는 황우에 목 ᄒ히 즐올 가련이 ᄉ시ᄒ며 부올을
인ᄒ여 글ᄌ기로의 청운이 자 열ᄉ니 버ᄋ은 귀ᄋ을 일오
지ᄋ을 은ᄉ 위 거ᄋ을 로리 낭셩 일ᄆ여 낭소올 강남ᄉ의이
독일ᄅ리 이어ᄒ야 장복의사 음을 가졍ᄉ이 장ᄒ되면

벽안지ᄂᆞᆫ 이강이양시치 못ᄒᆞ기ᄂᆞᆫ 예져쳔명운ᄯᅢᆯ손
라ᄃᆞ소ᄒᆞᆫ 뎐장ᄒᆞ랴ᄂᆞ 고변화를 쥬편 ᄉᆞ단을 ᄌᆞ라
상쳐리을 ᄂᆞ녜 드려 ᄒᆞ야다 ᄒᆡ나ᄌᆞ와 고ᄒᆡ연을 칭
찬ᄒᆞ여라 ᄒᆞ온 아ᄒᆞ을 다ᄒᆞ리의 랑의가 ᄒᆞᆫ왕이 ᄒᆞ로
일어나ᄂᆞᆫ 예궐의 ᄒᆞ로 셩이 ᄒᆞᆼ은 과ᄒᆞᆫ 왈 쳔ᄌᆞᄂᆞᆫ 이 방국
피ᄉᆞ 몽호와 평셔다 ᄒᆞ고 ᄃᆞ리 국의 몽왕은 그 ᄒᆡ이고 ᄋᆡᆼ을 ᄒᆞ록
드시나라 인지 심이 ᄆᆞᆯ 승감 ᄒᆞᆯ여 ᄒᆞ로 ᄉᆞ다 난셩이 ᄃᆞᆼ슨
월봉왕의 ᄃᆞ비 ᄒᆡ비 부ᄋᆞ와 ᄃᆞ니 거ᄌᆞᆯ 비본 ᄌᆡ여 ᄉᆞᄆᆡ
쳔ᄒᆞᆫ 쳔ᄒᆡ의게 가고 ᄋᆞᆯ 호ᄋᆡ 황강 모지로 ᄒᆞ여 다ᄒᆞ거 장군
이좌올 ᄒᆞ야 ᄉᆞ월 쇼장이 잘 ᄉᆡᆼ지 ᄒᆞ여 이연 ᄒᆞᆯ ᄒᆞ여 원
ᄒᆞᆼ을 모시ᄋᆞᆼ 다ᄉᆞ ᄒᆞᆼ 진의 ᄒᆞᆫᄃᆞ 쥬온 ᄒᆞᆫ관 왕연 진쟝이며 임
견디편 ᄒᆡ셔ᄯᅥ이 ᄒᆡ일 ᄒᆞᆼ원ᄉᆞ와 좌ᄐᆡ이 ᄇᆡᆼᄉᆞ ᄇᆞᆫᄇᆞ기ᄂᆞᆫ
츙심은 ᄇᆞᆯ ᄒᆞ와 아ᄅᆞᆯ 현ᄋᆞ여 ᄒᆞᆫ 쉐복은 갑이ᄋᆞᆺ

번이 셩각난 줄 알ᄋᆞ 이 잇ᄉᆞᆫ대 용호 소공이 뵈ᄋᆞᆸ하며
여왈 이번 졍쳔의 나을 졀우쳔ᄒᆞ을 쳑느 ᄀᆞ장ᄋᆞ에 와쌰
ᄃᆞ삼일은 올지는ᄃᆡ 능히 버혀 날ᄒᆞᆫ야 이엉셔와 ᄒᆡᄒᆡ미롤
쳑의 이ᄉᆞ거ᄂᆞᆯ 원슈 쳑진을 헤쳔 ᄃᆡ거을 ᄂᆞᄒᆞ ᄂᆡ이ᄂᆞᆯ 놉
형휘 당ᄒᆞ엿시 변어지 ᄒᆞᆫ번ᄒᆡ ᄂᆡ이ᄂᆞᆫ 낭쟝이 ᄎᆞ쳔을 나
자어ᄒᆞ여ᄂᆞᆫ 비 이옥으ᄂᆡ 왈 쳠은 얼리마 ᄂᆡ여 다복 삼방ᄂᆡ
여이 이시되 어ᄉᆞᄒᆞᄂᆞᆫ 번병의 말을 쳬ᄂᆞᆫ 길뒤 ᄒᆞ쥭 실ᄒᆞᆫ이 오쳘ᄯᅳᆨ
욱ᄒᆞ되 아올 쳥ᄒᆡ 봉ᄃᆞᄂᆡ쟌 동변 삼욱을 쳐결ᄒᆞ여 총
죽을 범ᄒᆞ고 엇지 쳔변을 남ᄒᆞ여 용이 ᄒᆡ불니 가ᄂᆞᆫ 온에
반ᄃᆞ시 ᄒᆞᆯ 현ᄅᆞᆯ 욱살이 히 방이 ᄒᆡᄋᆞ야 ᄒᆞ여시 ᄋᆞ옷되
냥ᄒᆞᆫ영ᄉᆞ되 이ᄉᆞᆫ 지혜 잇ᄉᆞᆫ 장슈ᄂᆞᆫ 비러ᄒᆞᆼ이 을 ᄀᆞᆯᄒᆞᆫᄂᆞᆫ
낭취 지쟝이 병스ᄂᆞᆫ 이ᄋᆡᆼᄒᆡ라ᄂᆞ 무기개 ᄒᆞ리 훙ᄒᆞᆫ 폰ᄂᆞᆫ 이웃
지ᄒᆡ 되잇ᄉᆞᆫ 쟉와ᄃᆞ 되보이 ᄀᆞ면 ᄉᆞᄋᆞ 병ᄒᆞᆫ ᄒᆡ불 ᄎᆞ란ᄒᆞ려

더라 ᄇᆞᆫ왕나탁이 흉노이 킈쳐ᄒᆞ여 나탁왈 흉왼슉
의 ᄎᆞᆫ연을 비벌ᄒᆞ고 이 셩벽의 양보리 싱이 간ᄒᆞᆫ 즁
여 북천을 바라 ᄂᆞ 엉ᄆᆞᆯ ᄒᆞ셔 거산을 ᄡᅳ거러 이져ᄆᆞᆺ
가서ᄒᆞᆫ헌 비용기을 혹소암 ᄒᆞᆫ 이러이 ᄒᆞ 셩ᄌᆞ의 이른
지오 ᄎᆔ오나 육벌ᄒᆞ여 ᄒᆞ던 숙ᄒᆞ여 규무이 십여ᄒᆞ여 보ᄆᆡ로
일을 견ᄃᆡ 강ᄒᆡ 어지 비양기을 발ᄒᆞ리오 마ᄂᆞᆫ ᄇᆞ라보ᄂᆞᆫ
셩ᄒᆞᆨ 분뎌 싱지은의 은ᄒᆞ여 시ᄅᆞ 그ᄅᆞ ᄃᆞ리 가이 젼연ᄒᆞᆫ 여ᄇᆡ
앙기을 편ᄒᆞ와 비아ᄂᆞᆫ ᄒᆞ오나 황강ᄒᆞᆨ 지라 지금 ᄒᆡ여고
영이여 육리이ᄒᆞ와 다 보ᄅᆞ하 ᄒᆞᆯ 이ᄒᆞ ᄒᆞᆯ 흉이 염슐
킈소왈 ᄂᆡ 겨ᄒᆞᆫ ᄯᅳᆯ 노왼 숙거 ᄇᆞᆫᄒᆡ 이옥ᄒᆞ고 언슘ᄋᆞᆯ 곳견
숙슘ᄒᆞ오ᄉᆞ 동별의 득성이온 ᄒᆡ을 발ᄒᆞ면 ᄎᆞ셩의 ᄃᆞ갈
지모ᄒᆞᆯ가 ᄒᆞᆫ 나이며 난셩이 슈슈을 나의 왕이 입ᄉᆞᆯ
시불롯ᄉᆞᆫ 옹이 ᄎᆡᆨ일ᄉᆞ 즁편의 노ᄅᆡ러니 이여ᄎᆡ 각

소와뵈잉ᄒᆞ시본ᄆᆞ음간절ᄒᆞ나ᄌᆞ일홍난쳘에
셕일홍ᄒᆞᆫ달이아니라ᄒᆞᆫ연숙슈ᄒᆞᆫᄆᆞ음이더쳔ᄒᆞ여결
거쳐불ᄒᆞ엿ᄉᆞ오니불신ᄒᆞ도ᄉᆞᆷ이다나탁을지금ᄒᆞ엿가
ᄉᆞᆷ연분ᄒᆞᆫ바ᄂᆞᆫ연ᄒᆞᆫ봉월안의ᄒᆞᆫ데발연시병질로
로가시니라그쇠ᄒᆞᆫ연이백을ᄒᆞ외가ᄌᆞᆺ을보이셜ᄒᆞᆫ그쇠
ᄒᆞ여가쳘ᄉᆞᆫ이드어간곳지엄ᄉᆞ오니아지못게라ᄒᆞᆫ스어ᄒᆞᆫ젹
울이서ᄋᆞᆫ니가ᄋᆞᆫ쳥이옷ᄃᆞ지일ᄃᆞ시쳔ᄃᆞᆫ홍쳑을보로옹
쳔이뒤왕을ᄒᆞ라츌산ᄒᆞᄂᆞᆫ드국의조라울거ᄒᆞ외조로셔
지로ᄒᆞ시ᄃᆞ오며ᄒᆞᆫ쳔하만국박ᄒᆞ을욕ᄒᆞᆷ구ᄒᆞ시면도ᄃᆞ의지ᄒᆞᆫ
시이ᄒᆞ온ᄒᆞᆫ달은볼니ᄒᆞᆼ국인ᄃᆡ라ᄋᆞ리민ᄒᆞ의ᄒᆞᆼ션ᄒᆞ셜셔
ᄒᆡ이엿ᄃᆞ나탁이옷ᄃᆞ왈ᄒᆞᄀᆞᆫ이금일가ᄃᆡ로셕ᄒᆞᄂᆞ이ᄂᆞᆫ도ᄒᆞ리
소ᄅᆞᆫ광이라소ᄅᆞᆫ광녹이ᄂᆞᆫ갈ᄂᆞᆫ이저금의ᄂᆡ가다시보ᄂᆞᆫ쳐로나
이야난쇄이울손아ᄂᆞᆫᄂᆞᆫ쇄검을가져오라ᄒᆞ여나칼ᄋᆞᆯ보

인ᄒᆡ 조왕이 ᄉᆞᆫ 방ᄉᆞ연을 물은 ᄂᆡ ᄂᆞ라ᄒᆡ ᄡᆡᆼ감을 ᄒᆞ여 ᄌᆞ
말기여 오ᄂᆞᆫ ᄃᆞᆫ 될 ᄉᆞ은 방은 중 절과 ᄒᆞᄂᆞᆫ ᄃᆡ라 본이 남방
의 ᄉᆞ은 다 ᄒᆞ여는 즘ᄉᆡᆼ이 이ᄉᆞ는 ᄒᆞᆯ이라 ᄒᆞ여는 산영리와 흉
ᄒᆞ여 ᄉᆞᆫ 기운 나 ᄒᆞ여 일흠이 ᄉᆞ지양이라 웃기 군 ᄒᆞ여
흰 ᄒᆞᆫ을 가지고 랑ᄌᆞ ᄒᆞ여 ᄃᆞ여 뫼울기 ᄃᆞ여 그날 니비
조울 감ᄇᆞ는 사옹 ᄇᆞᆫ 기운 ᄒᆞ 호효의 랑을 손ᄃᆞᆫ ᄒᆞ여 그 흉ᄃᆞᆫ
ᄒᆡ 분 ᄉᆞᆨ 여ᄋᆡ 나 ᄇᆞᆺ게 ᄂᆡ을 일ᄒᆞ여 ᄉᆞᆨ 상ᄒᆞᆫ 즉을 일ᄒᆞ여 고ᄒᆞᆫ
선의 긋운 ᄅᆞᆫ 평강이 ᄃᆞ지 양ᄒᆞ여 ᄃᆞ 흉 뵌 ᄉᆞ 뫼 ᄉᆞᄒᆞᆫ 여일
아지 ᄀᆞᆫ의 과 ᄒᆞ여ᄉᆞ 물어와 하연의 니ᄃᆡ와 ᄀᆞ중을 ᄒᆞᆯ고로
초ᄉᆞ 오ᄋᆡᆼ을 소취ᄒᆞ엿시 죽연시 ᄃᆡ쟝ᄉᆞᆫ의 칼 훈젹이 오ᄲᆡ겨
가볼어 ᄃᆡ갈ᄉᆞ 되여 ᄃᆞ니ᄃᆡ을 훈ᄒᆡ 엽시 ᄌᆞᆨ여ᄉᆞ지
즁이라 ᄃᆞ 모골이 ᄒᆞᆫ연ᄒᆡ여 이다와 ᄌᆞ흉이 돗ᄂᆞᆫ지 경ᄎᆡᆼ찬
아ᄂᆡ 하엿더라 난청이 ᄃᆞ리을 ᄉᆞ 나왕을 ᄒᆞᆫ ᄒᆞ여란

국ᄒᆡ작별ᄒᆞ니남요양에조참ᄒᆞᆫ수왈ᄃᆡ인등이
미ᄉᆡ지이나ᄒᆞᆫ벌ᄀᆡ심이아다로ᄃᆡ오ᄅᆡᄃᆡᄒᆡ셜흉젹와
ᄃᆡᄋᆡ의을다시ᄇᆡ을길이언ᄌᆞᆫ지ᄌᆞ원ᄒᆞ야기ᄅᆡ아쇠여영
나을구ᄅᆡ호ᄒᆞᄂᆞᆫ셩이호ᄒᆞᆫ츅년함츅ᄒᆞ여별ᄒᆡᆼ이의
홍ᄒᆞᆫ며ᄅᆡ라ᄂᆡ당의도ᄎᆡ와ᄂᆞᆫ황낭각노버인을비의젼
ᄎᆡ할셔남복인ᄎᆡ여이모라랑당의츅회는여을기ᄃᆡ
내을각노보인에난셩을기로ᄎᆡ일을ᄒᆞ진이난셩ᄉᆞ랑ᄒᆞ시
호셩네의강ᄒᆡ이범ᄉᆞᆫ그용랑츅역을츅ᄒᆡ어야라
고외인ᄉᆡ홍인ᄒᆞᄂᆞᆫ의거ᄌᆞᆼ이ᄌᆞ심을거병ᄒᆡ나황옥의
가오에강남홍ᄎᆡ이ᄂᆞᆫ번화ᄒᆞᆫ조지라인을이강인와
당ᄎᆡ부ᄒᆞᆫ는조지ᄅᆡᄂᆞᆫ쳔ᄉᆞ을ᄃᆡ기여조소년옥ᄒᆞᆷ고여
츅ᄒᆞᆫ츅평지이요ᄉᆞ모치안ᄂᆞᆫ져영ᄒᆡ쳥츔을ᄃᆞᆯ니고ᄒᆡ
이홍ᄒᆞᆫ거절홍여일호로라오셔범근부구홍이의ᄒᆞᆫ

눈도러좌우을살피매영ᄃᆞᆫ연왕은영웅ᄒᆞ하ᄒᆞᆯ미ᄒᆞᆫ숙
은졸연ᄒᆡᆨ의ᄒᆡ랑ᄒᆞᆫᄒᆡᆼ셕이오ᄅᆡ시ᄇᆞᆯ기시여시ᄐᆡ으신
는ᄒᆞᆫ번보ᄆᆡ그피상달ᄒᆞ을아라보니그ᄂᆞᆫ강의ᄌᆞᆯ인ᄒᆞ매
내ᄂᆞᆫ커ᄂᆞᆯ다시이ᄋᆡ조ᄎᆞᆫ거ᄒᆞ여박면피ᄀᆞᆼ의졍의을ᄃᆞ
ᄒᆞ여ᄒᆞ다니어지일리니ᄌᆞᆼ의ᄉᆞ다ᄉᆞᆼ의되오우리상ᄋᆞᆫ이ᄭᆡ양
일오시ᄃᆡ연왕이어ᄃᆡ변홍난셩의쟝ᄇᆡ졀경엄으리라
ᄒᆡ셩이난셩다연왕은ᄎᆞᆫᄒᆞᆫ의옥의ᄒᆞ여ᄂᆡ신조ᄎᆡ좌ᄌᆞᆯ시나
이다ᄉᆔ비란와를ᄎᆡᆼ은상하의셩장ᄒᆞ여보ᄉᆞᆫ몽이내ᄀᆞ감이
잇시며겸ᄒᆞ여만면ᄌᆡᄂᆞᆫ조ᄎᆡᄒᆞ나잇ᄂᆞᆫ거만ᄂᆡ두ᄎᆡᆫ음이
라ᄒᆡ게ᄒᆞᆯ인옥ᄒᆡ비록부녀이복ᄌᆞᆨ다ᄒᆞᆫ여조ᄌᆞᆫ부ᄌᆞᆫ말
이ᄒᆞ키ᄒᆞᆫᄃᆞ리ᄉᆞᆫ손ᄌᆞᆼᄒᆞᆯᄃᆞᆯ나ᄋᆡᆯ녀ᄃᆞᆫᄌᆡ부ᄒᆡᆼ의ᄇᆞ
ᄌᆞᆯᄂᆞᆫᄌᆞᆼᄃᆞᆼ의ᄂᆞᆼ이잇시되ᄉᆞᆫ만은죄부ᄒᆡᆼ의셕더여가ᄃᆞᆨᄒᆡ
여셕조화복ᄒᆞ여가ᄒᆞᆼ의화기ᄋᆞᆼᄒᆞ여화복ᄌᆞ은

난졍영순이 순다 홍ᄉ등의 뎌인가 홍노ᄒ여라 외면
이소왈 너의 부홍의와 미한 난셩의 말을 미고 믈이 ᄒ여
왈 난셩이 홍담용 홍이 일젼ᄒ여 소황씨회 긍졍저 시여
셩현디 ᄒ여 더ᄒ 금일 보미 다연ᄒ여 심상 현즈 홍이 어늘
가 홍ᄂ여 다연 비의 연왕이 순을 보ᄂ 잉비 ᄒ여 모부ᄒ엽
다시 모을 모셔 ᄂ축 부방의로을 다 홍여 동상 단복
의어 편ᄒ 을 다 홍여 ᄒ당으로 회ᄒ 당으로 물을 기ᄂ 블
로을 셔 순의 연이 웃ᄃ 연왕다려 왈 순상이 천가 되리 셔졍
젹히ᄂ 물 언리 강남ᄒ 홍 홍낭을 츤셰 가디 가 연왕
이 수어ᄒ 왈 셔 계상의 복영 응이 다ᄒ 웃 악도ᄂ 현 홍낭
의 월ᄒ 회 홍을 ᄃ보ᄒ 다셰 가남저 천ᄒ 혈셔 이그 장이나
연지 ᄎ 션이 온천ᄒ 디 잇ᄃ 난셩이 ᄎ다을 홍여 연왕의
웃ᄉ며 이술 보셔 션ᄎ 인ᄃ 되 왈 실상ᄒ여 일ᄆ호ᄒ량 ᄎ츤

로ᄀᆞᆫ 즁ᄎᆡᆨ이 ᄌᆞᆼ누의 봉젹ᄒᆞ여 온 길비 이엄 셔ᄃᆡ 쟝의 ᄎᆡᆼ수
의 몸이 방본 득ᄉᆡᆨᄒᆞ여 ᄌᆞ 엇ᄌᆡ 통ᄒᆞᆫ을 ᄎᆞᆯ혼ᄌᆞ 시ᄒᆡ오
[illegible]도이 졔 당ᄋᆞᆯ 난셩은 발을 ᄋᆞᆯ나 ᄎᆡᆼ은 ᄃᆞ으ᄃᆞᆫ 양
강평상의 양승ᄌᆞᆫ 끌을 그어 강남홍 열을 강남홍
온 노균 로양승ᄌᆞᆫ을 쵹ᄇᆞ너 이엇ᄌᆞ니 통ᄒᆞᆫ으 쵸쳔ᄃᆡ이 아
니ᄌᆡ을 ᄉᆞ복어의 ᄇᆡᆨ일어 박장ᄒᆡ 쵸ᄒᆞ여 면왕이 우어 와ᄂᆞ
는 그ᄒᆡ 실상 홍난을 ᄯᅥᄌᆞ리 ᄋᆞᆫ니ᄒᆡ 여 실ᄂᆞ 홍난은 ᄒᆞ이
욱회ᄒᆞᆫ가 시어너ᄒᆡ 일오ᄒᆡ 강남홍이 지근ᄃᆞᄒᆞ나 노
난셩이 츅왈 남를 은날ᄒᆡ ᄃᆡ상궁이 평ᄃᆡᄒᆡᄂᆞᆫ 홍누ᄒᆞᆫᄒᆡ
지ᄉᆡᆼ이 안여 제시다ᄒᆡ ᄃᆡ향 쵹쳥 강외 ᄉᆞᆯ랴은 노칭을 ᄃᆡ
ᄒᆡ여 ᄎᆡᆼ수을 우로 실ᄒᆡ에 언ᄀᆞ 쵹시 ᄉᆡᆼᄒᆡ 소ᄌᆞᆯ ᄒᆞᆫ쳔
베의 숙단이 ᄃᆡ오 일ᄌᆡ구 소ᄒᆡ거ᄂᆞᆯ 쳔쵸ᄋᆡ이 난셩의 양
ᄒᆡᄃᆞ이 안ᄃᆡ왈 난셩이 양강평오 ᄉᆡᆼ일시 아ᄅᆞᆫ을 무엇

으로여 섬여는 난편이 변석하며 ▢ 변양 놉흔 낭은
백성산 도탕하의 열탕을 쇄하오 광채 등이 다어는적
리울 분 부어 술 탕하여 지리상 흔히 본 설당이 탕속할
근로의 짐하리오니 흠수연 물이 안우니 소흔하의 율를 문게라
빅약 천으의 비리하며 가꿋혀 그물색을 알보기 쉽거니와 남
수현의 복으로 일도는 송관혀석의 남은 염시을 바라근은
숙수의 편심을 얻고져 알은 혀 심혀라도 난편이 송왈은 의복은
비록 남수혀 나라 상의 양면의라 하며 일노 방백이 만리
출나 곤읍도 숙숭 지아 나혀 여 그이 범하 불알리다 조줌을는
숙지여 나는 지금 ▢ 염왕의 책의로 조당치 못할 거시 연슬
본관이 흠를 범하고 지기을 시행하여 복숙흔 낙혀미리오
난흔를 은나 벽성현은 벽성산 흔 도당하와 월손 비리을 안으는
이 왕을 경혀서 봉황수를 타라 가 흥편을 격 장리 웃

일시라 ᄃᆡ강을 인욕ᄒᆞ여 쳔ᄒᆞᄂᆞᆫ 모부샹은으로 조장의 복
명ᄒᆡ 호록ᄒᆞ되 그 심이 ᄉᆡᆼ져ᄒᆞᄂᆞᆫ 졍을 ᄒᆞ되 아니ᄒᆞᄂᆞ니 영리
져ᄂᆞᆫ가 인ᄒᆞ여 욕되ᄂᆞᆫ 샹즁의 부손ᄒᆞᆯᄂᆞ니여 시러오 욕됨이ᄂᆞ니
리용ᄒᆞᆫ 일ᄒᆞᆯ 션ᄒᆞᆫ 의심ᄉᆞᄂᆞᆫ 노실이 발ᄒᆞᆯ그리 ᄒᆞᆫ얼 미샹일
흥ᄒᆞ여 ᄉᆡᆼ혓ᄃᆞ들을 잇지ᄒᆞᆫ 난을 ᄎᆞ이 버리ᄂᆞᆫ 이에ᄂᆞᆫ ᄒᆞᆼ상이 이
지도ᄒᆞ신 우리 ᄂᆞᆷᄋᆞᆯ 다시면 속의 ᄅᆞᆯ 계ᄒᆞ시인가ᄃᆞᆫ 스파
쳘ᄒᆡ 복인을 보셧다가 되욕ᄒᆡ 갓가이 안ᄒᆡ 셜낭을 가로
쳐ᄒᆞ여 져가ᄎᆡ 착ᄒᆞᄂᆞ어 엇ᄂᆞᆫ 낭근을 ᄂᆞᆨ어 어그 ᄒᆞᆫᄃᆞᆯ
ᄒᆡ시어 노실의 나ᄂᆞᆷ의도 본ᄒᆞ더 이ᄃᆞ 우리 보연은 난셩이
양강평노ᄂᆞᆷ의 ᄉᆞᆨ즁 원키 결가 즁여 노신다ᄒᆡ 여ᄂᆞᆫ 보ᄂᆞᆫ
의진록 ᄒᆡ되다 어ᄂᆞᆫ 불길 잇은ᄂᆞᆫ을 주ᄃᆡ 어오와 주ᄉᆞ 오ᄉᆞ
ᄒᆞᆼ록 셩ᄂᆡ의ᄀᆞᆯ 발을 ᄒᆡ다ᄒᆞ여 혼ᄃᆞᆫ을 에다ᄃᆞ 기로ᄒᆞᆷ
낭ᄃᆞᆫ을 살ᄒᆞ여 내여 시어 우리 ᄉᆞ쳐ᄂᆞᆫ 착지 못ᄒᆞᆫ외

며홍낭ᄌᆞ가홍ᄇᆡᄒᆞ야ᄒᆞ나고신이낭ᄌᆞ의ᄒᆡᆼ쳔ᄒᆞᆸ
샹경ᄒᆞ여계실ᄯᅢ가ᄎᆞ발을갈ᄒᆞ여홍ᄉᆡᆼ쳔ᄒᆞ여
홍난ᄌᆞᆼ은양궁ᄌᆞ리우리소ᄒᆡ을리시ᄂᆞᆫᄃᆞ우리소ᄒᆞᆫ는
홍난울살니ᄒᆞ여시ᄃᆞ황복인은궁여ᄉᆞ문면낭ᄌᆞ을
모ᄒᆡ고ᄌᆡᄒᆞ여시니가을복인이눈물ᄉᆞ보이날을막ᄂᆞᆫ쳐ᄅᆡ
나이리모ᄒᆞᄃᆞᄒᆡᆼ실은다ᄅᆞᆯ니ᄌᆞ라ᄒᆡᆼ실을ᄒᆡ될ᄃᆞ어이
ᄉᆞᆨ짝ᄒᆞ시ᄂᆞᆫ디엇지여저ᄃᆞᆺ무례이ᄌᆞᄂᆞᆫᄌᆞ윌ᄃᆞ이어ᄉᆞ욀을머
거괴ᄉᆞᄂᆞᆫ일장ᄉᆞᆯᄋᆞᆼ이야카광ᄒᆡ말이확실ᄒᆞᆫᄉᆞᆼ면
이라ᄒᆞᆫ말ᄒᆞ여ᄌᆞ책ᄒᆞᄆᆡ엇지못ᄒᆞ오리오니ᄌᆞ리실
이ᄉᆞᆨ니야변편ᄉᆞᆼ이라ᄒᆞᆯᄋᆡᆼᄂᆞᆫ더ᄒᆞ다ᄒᆞᆫᄋᆡᆼ의ᄒᆞᆫᄉᆞᆨᄒᆡ
물ᄋᆡ되보고ᄂᆞᆫ미야또ᄂᆞᆫ에ᄃᆞᆨ기ᄒᆞ며그로골ᄌᆡᆷ이보ᄌᆞ며
어나나고ᄒᆞᆫᄉᆞᆨᄒᆞ지거ᄉᆞᆸ이어나ᄂᆞᆫ고골온지울이안ᄂᆞᆫ또아
셤이셩기야이엇지부인에ᄌᆞ의조심ᄒᆡ안니온ᄒᆡ며ᄒᆞᆫᄒᆞᆸ

ᄒᆞᆫ여곤의춍패ᄒᆞᆯ배아니라오형ᄒᆞᄅᆞᆯ봉ᄒᆞ여다ᄉᆞᆯ상
의ᄒᆞᆫ홍ᄒᆞ시므로용ᄉᆞᄒᆞ시ᄃᆞᆯ용인의교화의덕이
며난셩셩훈인의인ᄒᆞ리ᄃᆞ으로인ᄒᆞ의참녜ᄒᆞ여일
리이ᄃᆞᆼᄒᆞᆫ왕비의ᄯᅳᆺ을누리여ᄒᆞᄋᆡ복록기왜인복
이ᄀᆞ오인가ᄌᆞ나이다알ᄒᆡᄌᆞᆯ숩이보ᄒᆞ며ᄆᆡ졀ᄉᆞ을
ᄉᆞᆯ기ᄀᆞ이아ᄆᆞᆯ탕봉ᄒᆞ여ᄇᆞᆷᄉᆞ이ᄌᆞᆼ셩ᄒᆞ니여ᄃᆞᆼ은안
픠ᄒᆞᆫ가이욕을ᄉᆡᆼ이아왕이로왈연망은언지ᄆᆞᆯ이여는
노난셩이ᄉᆞᆼ왈ᄒᆡᆼᄃᆞᆼ은상공을박나ᄆᆡ비폐로만나
시여곤여ᄒᆡ발ᄒᆞᆫᄇᆡᆼ이블ᄀᆞᄒᆡ가여와연ᄉᆞᆯ은동왕ᄒᆞᆯ슉
의녜ᄅᆞᆯ갓초아근ᄃᆞᆼ을미쳐시여ᄒᆡᆼ케아닌ᄒᆞ시아ᄎᆞᆷ등
의쵹ᄅᆞᆯ을실펴미간연ᄒᆞᆯ며ᄃᆞᆫ연당이ᄉᆞᆼ왈만나
ᄒᆞᆫ죽의외ᄅᆞᆷ이ᄅᆞᆯ을그로이ᄅᆞᆫ줏ᄎᆞᆫ은어지위험을알
현ᄃᆞᆯ니이ᄉᆞ리로츙은러욱벗그리나여다모ᄆᆞ허소

돌며 위기만을 ᄃᆞ나와 셔로 권ᄒᆞ여 가ᄂᆞᆫᄒᆞ여 ᄎᆡ 즙소
로 가ᄂᆞ라 사신의 난셩이 ᄎᆔ봉ᄒᆞ와 외상 임은 ᄎᆡ 쳔안
을 ᄀᆡ여 감을 드러 ᄒᆞᆯ 변 ᄒᆞ셔이 황호 重ᄃᆞᆼᄒᆞ여 ᄒᆞᆫ
곳의 일은 일 관영 상의 봉ᄒᆞ여 놈ᄃᆞ고며 람 ᄒᆞᆯ ᄒᆞᆫ디
돌 비ᄉᆞ괴 ᄒᆞ며 옥 갓ᄐᆞᆫ 쳥용은 변ᄒᆞ와 갓ᄎᆡ 쳥고ᄋᆞ 긴
돌ᄎᆡ 운이 영웅ᄒᆞ은 하거 ᄂᆡ되여 거흔 난셩이 홍봉의 ᄋᆡᆫ
으뫼 일 외봉 ᄉᆞᆯ이 ᄂᆞᆫ 셩은 ᄯᅥ구름 덜굴이 욕 갈 훈 뒤흠
강을 착ᄒᆞᄂᆞᆫ 쳑 장을 장ᄃᆞ 난셩을 마조나뫼여 일은 뒤연
간지ᄋᆞᆨ여 여ᄃᆞ훼 보 난셩이 방ᄇᆞᆯ이 셰ᄃᆞ 뒤일을 ᄌᆞ손은 누구시
ᄇᆡ인 간의 낙온 불흔 일흠 ᄉᆞᆫ이가 ᄌᆞᆫ본 ᄉᆞᆯ흔 ᄋᆞᆷ을 ᄉᆞᆫ와 돈 쳑
강을 공훈의 ᄃᆡ 그ᄂᆡ 쳑 ᄋᆞᆼ이 면ᄒᆞ며 일로 부리거 되며
회ᄋᆞᆯ 외다 ᄋᆞᆺ기 ᄂᆞᆯ 보ᄉᆞᆯ흔이 난셩라 그ᄃᆡ의 울 ᄐᆞᆫ ᄉᆞᆼ훙
의울 ᄋᆞᄃᆞ흔 ᄆᆞᆷ이 ᄋᆞᆻ ᄌᆞᆼᄒᆞᆷ어 ᄒᆞᆫᄒᆞ여더라 난 셰ᄆᆡ 본 ᄯᅡᆯᄋᆡ

문은 복숭운이 잇ᄂᆞ 보살이 이은ᄃᆞᆯ이 봉은 남해운에 나
그ᄃᆡᄂᆞᆫ 불우외울나 바리보와 나쳔에 보살을 ᄒᆞ와 남
쳔옹이 울나 ᄒᆞᆫ 곳을 바라보니 ᄅᆞᆼ쳐 ᄒᆞᆨ회ᄒᆞᆫ 일은 월이
쳥 남ᄒᆞᆫ ᄃᆡ 일워 ᄀᆞ자이 빈ᄉᆞ의 ᄉᆞᆯ시고 벽옥 ᄀᆞᆫ
옥ᄒᆞ과 지룸이 ᄋᆞ궁 ᄌᆞ은ᄒᆞ여 호의 부ᄒᆞ여 바ᄅᆞᆷ 기여
평ᄃᆡ와 ᄀᆞᆺ흔ᄂᆞᆫ 조봉황이 ᄡᅡᆼ을 지어 비회ᄒᆞ여 ᄉᆞ리ᄒᆞᆫ
동이며 삼순이 신여 ᄒᆞᆫ여 ᄉᆞᆼ 으로 난간ᄂᆡ 디외 ᄒᆞᆺᄂᆞᆫ 구ᄉᆞᆯ을
ᄀᆞᆫ 쳔에 옹ᄂᆞ 쳘단에 난간의 ᄇᆡ ᄒᆞ 구ᄒᆞᆺᄂᆞᆫ 다 썻쳔 내 ᄃᆞᆼᄒᆡ셔
부ᄒᆡ여 난간을 베프ᄂᆞᆫ 란ᄭᅡᆷ이 마ᄋᆞᆼ이라 나ᄂᆞᆫ 졍에 봇ᄐᆞᆫ 오ᄃᆡ여
곳은 어ᄃᆡ며 져 쳔단은 ᄀᆞ득 시ᄂᆡ 이르ᄂᆞᆫ 보살을 미륵보살이ᄂᆞ
이ᄂᆞᆫ 홍은 벽옥ᄀᆞ로 ᄭᅮ며 쳔란은 봉황선이 요조ᄒᆞᆫ
셜이ᄂᆞᆫ 쳬망은 ᄒᆞ와 ᄎᆡᆨ모쳔라 홍 난쳔의 취 ᄒᆡᆼ션에
와도화 쳥이나 그 중 홍단쳥 인ᄌᆞ 그리의 쳔신이

뢰나난셩이 놀나 일을 져쳔관 쳔에는 쳔상의 나는 조해
서는 신션이라 어지러되 취한 수 어드 보살이 우근한장
셔행하여 계한 귀을 의우이 발

우평셩셩연하고 평을 이연하여 연연이 셩가는
욕연셩 쳥이라 인연을 인하여 쳔이 사랑하니라
평연연한이 변 경이 길하고 인연이 올흐니
미상즉 곤이라 일만 셩가이 다 복다하리

보살을 의옹즉은 게을 줄을 우며 쳔상 상연하는 줄 몰하시
쳔왕을나 놀불데 쳥상 셩쳥으로 몰광라 연연이 하쳐
하연 만들어 조리하면 보살는 그 일을 쳔셜 간들어 어그셔
의 광을 쉬 되여는 보살이 쳑광을 들어 궁둥을 자라 되발
쳔을 이 쳐 그 눌 보자 나는 셩이 다 수 살려 보니 신연이 리 큰 별이
강쳥을 홀연이 벽옥수의 하쳔을 여 광지를 뢍홀을 쳔하리라.

난셩이 뭇ᄌᆞ오되 져별은 부슈별이니 엇ᄌᆞᆫ 보살이 계로쇼
와를져홍 큰별은 하리셩이오 그다음은 삼태셩이라 북
쳥이 입의 안ᄒᆞ야 나셰시며 그뒤 븐 ᄒᆞᆫ별은 ᄎᆞ칠리
대현이 눈뇌ᄅᆞᆯ 젹강즁에 안 셔롤즁의 문챵셩라 인
별을 미쳐 다가 길에 다ᄒᆞᆫ 후 옥좌 허봉을 ᄒᆞᆫ쥐와
난셩이 남펀을 바라보니 별ᄃᆞᆯ이 잇셔 향원 병낭께
계올 보살게 뭇ᄌᆞ오되 져별은 북ᄉᆞᆫ별이 뫼리 강쳐
잇ᄂᆞ니 엇ᄌᆞᆫ 보살왈 져별은 칠당셩다 ᄒᆞ여 셩이니
그뒤와 일광야 연이 잇셔야 ᄯᅩᄒᆞᆫ 그뒤을 드을 이어 이ᄂᆞ니라
인연 슈ᄒᆞ와 야연 보복지 니로되 인을 이어 모라 그러되
훗일이 냥난 즁연일이라 난셩왈 연후 ᄒᆞᆫ도 ᄒᆞᆫ상
셩뎡이라 입의 죤ᄉᆞ 되지 로되 시불으와 시여 다시 인ᄒᆞᆫ의
기가올 될쳐 이나 이다 보살이 ᄉᆞ와를 ᄒᆞᆫ쳥 계ᄉᆞᆨ —

을인력으로외계ᄒᆞ며오직연이아직이셩ᄋᆡ밧
비로라가쟈이후ᄂᆞᆫ상여년후다시옥졔쳔의도회ᄅᆞᆯ
ᄒᆡᆼ상낙을ᄃᆡ누리다가극낙국으로왕ᄉᆡᆼᄒᆞ리니박비로라
갈지어다난셩이 묵은오ᄅᆡ돈ᄃᆞᆫ복로을부어시라
희나여가분살이소왈엔즉은남희숙월안쇄음이
라되가여희병으로그ᄅᆡ을저도ᄒᆞ려되나여ᄇᆞᆺ날ᄉᆡ다
시이엇실이라희여쳑장을ᄃᆞᆯ어궁즁의더지며무지게
일어다ᄂᆡ한소ᄅᆡ벽녁셩의경각ᄒᆡ여ᄒᆞᆫ용은누당의
일ᄃᆞᆫ쳥룡이라이웃삼각ᄒᆡ며니ᄂᆞᆫ지우인ᄃᆡ분황셩
은여왕이일시평명ᄒᆡ여신거ᄂᆞᆫ로ᄒᆡ관ᄒᆡ여병로본안ᄒᆡ
을당ᄒᆡ여일은분히축회ᄒᆡᆼ히봉ᄂᆞᆫ을인을이날ᄃᆞᆯ어보
다시라이너기ᄂᆞᆫ쇄킈보ᄒᆡ불키관ᄒᆡ니ᄒᆡ비왈니ᄂᆞᆫ로
록자식영으물을ᄒᆡ여ᄂᆞᆫᄂᆞᆫᄒᆡ여육년용의갓다가ᄋᆡ연

이셕불쳔의빌ᄋᆞ아ᄂᆞᆫ을나아싱어ᄂᆞᆫ랑음보쳔이시라
거ᄌᆞ희ᄂᆞᆫ날상ᄉᆞᆫ다나와몽ᄉᆞ여좌ᄒᆞ니그ᄉᆞᆼ여울잇
지못ᄒᆞ기ᄂᆞᆫᄒᆞ나진거지못강리못ᄒᆞ여ᄉᆞᆫ니랑음이
ᄒᆞᆫ봉ᄒᆞ여불슨을권쳥쳔ᄒᆞ시니어ᄂᆡ와온ᄃᆞ로ᄂᆞ니쳔
낭의부친보조ᄒᆞ쉬즈리분ᄒᆞ승ᄉᆞ여인쳡불범이랑
쥐복랑ᄒᆞ다ᄒᆞᆫ쳥ᄒᆞ여되의ᄂᆞᆫᄒᆞᆫ드우연봉셕
쳔을위ᄒᆞ여암ᄌᆞᆫ을일우ᄒᆞᄃᆞ되승ᄉᆞ의벅이ᄅᆞᆯ쥐려
ᄒᆞ여란용복ᄉᆞᆯ의부랑ᄒᆞ신공덕을이ᄌᆞᆫ지을이라
즈쳥삼봉당ᄂᆞᆫᄒᆞᄂᆞ라ᄒᆞᆫ슈어ᄒᆞ보조주승을쳥ᄒᆞ여
백일긔리와더ᄌᆞᆯ을쳥건ᄒᆞ기의ᄂᆞᆫᄒᆞᄂᆞᆫ곰ᄌᆞᆫ을후이보
네여암ᄌᆞᆫ을쳥건ᄒᆞᄂᆞᆫ그후오싱여연을오복이구쳔ᄒᆞ여
누와취야우빗갈싱의ᄌᆞᆫ승의주리ᄒᆞᆫ을ᄒᆞᄂᆞᆫ병
년시ᄒᆞ가나다가지연을엇ᄂᆞᆫ그후연완이ᄒᆞ서ᄒᆞᆯ

잠일심상의 나라을 진ᄒᆞ여다가 을목이온 삼곤
이여오 황복이온 이즁얼의 을복이온 쉬칠은 심이오
황복이홀 ᄉᆞ 심ᄂᆡ쇄을 지ᄂᆡᄂᆞᆫ 홍난 쳔은 오은 삼ᄇᆡ
을혹ᄂᆞᆫ 뒤에 병호ᄂᆞᆫ 바지여 벌왕다 즁 그ᄃᆡᄂᆞᆫ 벽왕라
쉬주심삼쇄 석흠엽시 주리ᄀᆞ 쳔즉인은 삼ᄂᆞᆫ 이ᄇᆡ
오연동 효상 즁여와 쉬 칠실 지연의 복광 리복다
곤편의 영 효 국진 즐다 연용의 남ᄇᆡ 이심즉인의 심즉
간심ᄇᆡ을 혹여 리복 회 봉여 로리ᄆᆞᆫᄂᆞᆫ 연 욱쵸 쳥 줄로
곤ᄂᆡ쳔ᄂᆞᆫ 회여 복낙이 부광회 나쇄의 드 본열이 앙러
옹쇄 상의 손람이 나ᄇᆡ 상숙ᄂᆞᆫ 벽 쇄 오 홍숙ᄂᆞᆫ 찰 심
이오 회숙ᄂᆞᆫ 즉 심이 나 온구롬다 효토ᄂᆞᆫ 무ᄂᆞᆫ 갓거 줄 고
즁 뢸 렴ᄂᆞᆫ 술로 일ᄂᆞᆫ 잇시며 궁갈이 잇쇄 줄 가지며
비여ᄂᆞᆫ 그즁이 리ᄇᆡ다가 즉 ᄂᆞᆫ의 낫다 ᄒᆞᆫ다 보라 슐혼

일이타가된지아니하오면셩이싱삭을ᄀ보복종
의의여쳐허국오텬지져을다나오옥칠형은인ᄀ셔
다름수현에와난진인셰의가보와여선이보신로보
로나오히려여을즐은알이된슐더여셔새러여ᄅ이
쇠의불형을본간히ᄅ회로울알모여삼쇠의말을로
화비소로물육이산허ᄅ오쇄러여순업다긍휼챤의공부
울식여심쇠의일순울리러ᄃ는ᄀ회교거낙울이릇ᄒ여
공명울출ᄃ여속람의삼심쳔저물이요순심쳔긍명
이요인셩이에휵허여텬령순울보ᄂ부라여인례으로
복지울극허ᄂ바알리ᄀ보실이엇쇠홍셩울지로허고
긴ᄃ웃지안여되요불율뒤왼바으로쇄졔홍셩울되
로허순셩심은되미다러이부허졍심을보나거만
은부쳐되기는비컨대순ᄂ동비ᄉ회휵쉬인것

갓ᄂᆞᆫ츈상의숙셩편은ᄂᆞᆫ 징험ᄒᆞ 평지ᄋᆞ
화후갓ᄂᆞᆫ지우가ᄒᆞᄂᆞᆫ데지쇠제후가다ᄒᆞᆫ시나낫
흉셩이어지다부ᄒᆞ리게제도ᄂᆞᆫᄒᆞ시나다모ᄒᆞᆫ
년ᄂᆞᆫ초증ᄀᆞᆯᄒᆞ영육다ᄂᆞᆫ회인ᄌᆞ이ᄒᆡ지ᄂᆞᆫ만ᄒᆞᆫ거셔어북
숙망상오ᄋᆞᆸ을부ᄒᆡ의지원ᄑᆞᆨ인나셔오ᄒᆞᆫ지ᄂᆞᆫ숙
간ᄒᆞᆫ유의ᄉᆞ숨이안ᄒᆞᆫ셩권을되리의부흥이삼
ᄂᆞ빙열ᄒᆞ여우어결징의비와ᄋᆞᆷ의ᄒᆞᆫ거ᄋᆞᆯ막지못
후편베을ᄒᆞᆷ우지못고십진ᄂᆞᆫ을어더국의부ᄌᆡᄒᆞᆷᄂᆞ나
의ᄒᆡ당ᄒᆞ미여명산주ᄒᆞᆫ●이인ᄂᆞᆫ의ᄒᆡ흉과국얼ᄂᆞᆫ동국
음ᄂᆞᆯ의쇼ᄒᆞᆫ쳔과진봉이무흑ᄒᆞ니다ᄂᆞᆫᄒᆡ과ᄂᆞᆫ하ᄒᆞ니
승편의부흑ᄒᆞ이여ᄒᆞ상의ᄒᆞᆨ을새여ᄂᆞᆫ곰ᄃᆞ리ᄂᆞᆫ다
쳥ᄒᆞ흥ᄆᆞᆼ을벗ᄂᆞᆫᄒᆡᄒᆞᆫ이ᄒᆞ리ᄂᆞᆫ통츠가ᄂᆞᆫ원ᄒᆡᄒᆞ인의ᄌᆡ
쳘이ᄂᆞᆫ굴ᄒᆞ되ᄂᆞᆫ사ᄅᆞᆷ이쇠상의ᄂᆞ배ᄂᆞᆫ흥ᄒᆞᆫ을본을ᄂᆞᆫ호

알아 잉신 앙변ᄒᆞ여 별 그가온ᄃᆡ 다앗ᄂᆞᆫ 열왕남 풍속
갓ᄒᆞᆫ 니ᄂᆞᆫ 평ᄉᆡᆼ을 일우ᄒᆞ여 오복이 무궁ᄒᆞ다 그 근본을
궁구ᄒᆞ여 변다ᄅᆞᆫ 일영 ᄉᆡᄃᆞᆼ 근어 호긔ᄒᆞ여 ᄐᆡ오 ᄂᆞᆫ어 오
술지상ᄒᆞ고 졔오 빈어 화호지덕ᄒᆞᆫ후 ᄒᆡᆼ디 먼ᄇᆞᆫ의
쳔ᄒᆡᆨ ᄒᆞᆼ녹ᄌᆞᆫ 벽연ᄒᆞᆫ 나으로 ᄀᆡᆨ야 ᄂᆞᆫᄒᆞᆯᄉᆞ로 ᄒᆞᆯ심ᄒᆡ
ᄃᆞ 복ᄒᆞᆯᄉᆞ록 소심ᄒᆞᄂᆞᆫ ᄒᆞ며다 ᄒᆞᆫ의 흉흉인 ᄒᆞᆯᄉᆞ록 남을
낫비보지 아녀 쳥빈ᄒᆞᆯᄉᆞ록 제구ᄒᆞ 심이여 탐막방
이라 ᄒᆞᆫ후에 어지 복을 아녀 ᄌᆞ시ᄃᆡ 몰입 진ᄒᆡ 덕ᄒᆞ여 미샬
ᄒᆡᆼ을 조심ᄒᆞ고 ᄂᆞᆫ이 인ᄒᆞᄂᆞᆫ ᄒᆞ여 너거 변더욱 조심ᄒᆞ여후
일을 ᄉᆞᆯ피어 지혜을 운동ᄒᆞ여 잘될 ᄯᆞᆯ 공ᄒᆞᆯ ᄌᆞ의
ᄒᆞᆫ고 의심을 기피ᄂᆞᆫ 즁은 미ᄉᆞᆯ 변연인 ᄂᆞᆫ로 권ᄒᆞᆼᄒᆞ니
가의 ᄌᆡᆼ인이라 원이 ᄂᆞᆯ 부어ᄒᆡ 독ᄒᆡᆯ ᄒᆞᆫᄉᆞᆯ ᄒᆞ논 ᄋᆞ형
의지심이라 가의 ᄒᆞ로ᄇᆞᆫ 구ᄂᆞᆫ의 승 ᄒᆞᆫᄂᆞᆫ ᄃᆞ라 거ᄒᆞᆯ고

지인은 즁ᄒᆞ시ᄆᆡ 션연이 그ᄂᆞᆫ 나 권연의 회고 되락을
뎡연이 ᄯᅥ어 보리 못 황시 갓ᄒᆞᆫ 뒤 갈을 ᄆᆡᆺ나시니 복ᄂᆞᆫ 뉵
뢰ᄒᆞ여ᄂᆞᆫ 무연 부당이와 그외의 ᄂᆞᆫ을 디영이 전이 견ᄒᆞ더
불강 양식이 이어지 발어 노석ᄒᆞ여 그러ᄒᆞ여 어ᄃᆡ라
즁연 쇄외 존엄ᄒᆞ여 강ᄒᆞ여ᄒᆞᄂᆞᆫ 헐곳ᄉᆞᆯ 장리 못ᄒᆞᆯ이 내
존연 옹셔의 단욱 부흠ᄒᆞ여ᄂᆞᆫ 라연 소도 불ᄂᆞᆫ 숙연 젼
대ᄒᆞ여 ᄂᆡ욕화 온 궁ᄒᆞ여 복ᄀᆞᆫ 셩비 외아 쾌되기 을 쇄ᄒᆞᆯ은
지어 ᄇᆡᆨ 슌ᄒᆞ 긘 ᄒᆞ여 영기 조 국ᄉᆞ 쇼의 실회 ᄒᆞᆫ 쳔이
조 감이 ㄱ 즁의 비외ᄒᆞ여 뒤ᄉᆞ 외ᄃᆡ을 엇어 보ᄂᆞᆫ 나 ᄒᆞᆯ
울 그 시ᄒᆞ여 난 ᄒᆡᆼ을 구ᄒᆞ여 ᄒᆞᄋᆞ 쥴을 복ᄒᆞ셔 이엿
지 빗벌ᄒᆞᆫ 이 ᄃᆡ오 황부인은 쳔ᄒᆞᆫ 이 고오ᄒᆞᆫ의 솩
부연 갓 쇠 가라 ᄒᆞᆫ 중ᄒᆞ여 시 셕을 드거ᄒᆞᆫ다 가 일은

흥타을 뵈거내든 뒤 송의 일광 경계와 헛ᄉ화노으니
일더안 평현왕이 되여 그후로는 오쥐이 동거갓치화
목히든 히물을 가ᄒᆞ 쾌거치 아니ᄒᆞ드니 중의 스람은
아롬 중부의 흥등ᄒᆞ여 엉수 혹여 봉흥이 물알거
시오 북이 스승을 거라 혹돈 줄남 네는 송이 변ᄒᆞᆫ 든여
일본 거니의 다셧 출ᄒᆞ의 북이 쳐변을 너그 번화 다술
을알리 시야 일분이 화혹ᄒᆞ미 얼심으로 지키는 비여
눈 지어난 ᄒᆡᆼ분 강남 핸흔으로 실변 ᄒᆡᆼᄒᆞ와 빈옥치
질이 일햄흔이 완전다가 여ᄅᆡᆼ 숙진로 노흔화의 장
간보ᄃᆞ 백연 신체을 ᄒᆞ신흔 여벌 칠의 기여진 셜진
비ᄒᆞ너 그때 리져로 셔의 로등ᄒᆞᆯ 생구ᄒᆞᆫ데 부덕이 승
펨히의 거거른 로변 넌ᄒᆞᆫ 로복즁이 복광흔다 쾌
비지명이 일실의 하와든 보의 넘치다 그리ᄒᆞᆫ마

형ᄎᆡᆨ을 좃ᄎᆞ이 ᄒᆞ여 ᄌᆞᆼ여 마ᄅᆞᆯ 반ᄒᆞ엿ᄂᆞᆫ이여
긔가 그라 ᄲᅧᆯ리 ᄎᆞ리ᄉᆞᆯ ᄒᆞ여 심 번 ᄎᆡᆼ수의 이ᄅᆞᆫ ᄂᆞᆨ조ᄅᆞᆯ
서ᄒᆡᆫ ᄒᆡᆼ으로 말ᄒᆞ면 ᄌᆞᆫ길을 승ᄒᆞᆫ 쿨ᄒᆡᆼᄒᆞ여 숑연이
반 크의 거ᄂᆞᆫ 그 강ᄯᅳᆯ을 귀ᄒᆡ여 ᄌᆞᆼ 비ᄒᆞᄂᆞᆫ 지ᄒᆡ라 ᄉᆞ람이
북ᄉᆞᆯ이 ᄃᆞᆫ지 게지 당ᄒᆞᆫ 긱분을 온ᄌᆞᆼ이 ᄒᆡ가 여렵
기로 발ᄒᆡ 번 어려운 ᄃᆞᆺ ᄒᆞ야 다 거우연 지 이ᄒᆡᆫ연이라
션심이 어ᄂᆞᆫ 지 외울 이러 분외ᄒᆞ나 지ᄒᆡ 라 어ᄭᅵ 빈
이 ᄯᅩᆺᄎᆡ들 이ᄅᆞᆫ 이 아여 ᄂᆞᆯ ᄎᆞᆼ의 외연 ᄒᆞᆫ수 다 지조ᄅᆞᆯ
리난 ᄒᆞᆼᄒᆞ이 ᄒᆡᆼ여 파 이ᄅᆞᆫ 디 이에 ᄂᆞᆫ 조 저 ᄎᆡᆨ 준시의 노
궁을 ᄋᆞᆺ지ᄀᆞᆫ ᄒᆞᆫ ᄃᆞᆫ와 셩심을 현ᄉᆞᆺ되 시게ᄒᆞᆫ 여ᄉᆞᆫ 대
무지 ᄒᆞᆫ을 어 ᄎᆞᆯ노 ᄃᆞᆨ서 나 우면 이ᄅᆞᆫ 실이 기로 지 ᄎᆞᆫ 편
창녀로 최ᄒᆡ 지몽이 어연ᄒᆡ 모ᄅᆞ ᄂᆞᆫ ᄒᆡ 간의 ᄋᆞ의 엽는
가 ᄒᆞᆯ기 서야 실 상 그러ᄒᆡᆼ의ᄅᆞᆫ 이로 ᄒᆞᆫ 문을 ᄒᆞᆫ ᄆᆡᆨ ᄀᆞᆫ 편 손ᄋᆞᆯ

오라가 황뎨 혹자 쳔ᄒᆞ시ᄂᆞᆫ 례을 바다 리신 갓ᄎᆞᆫ 흉
의 굴촉기을 달께 여가니 어도 인ᄒᆞ여 못ᄒᆞᆯ 일이여ᄂᆞᆯ
다시 황시을 뎌으로 뫼을 감ᄒᆞ니 그로어 ᄒᆞᆫ 일이
온 싱변 쳥구의 빙유 쳘리을 ᄀᆞ리 직ᄒᆞ여 일 복흥
실ᄒᆞ이 조시다여 평ᄉᆡᆼ 일을 능ᄒᆞ다 ᄒᆞᆫ 보시어 가며 복을 마
ᄃᆞ이 당ᄒᆞ여 ᄌᆞ니라 승숀 굼ᄂᆞᆫ 외 그로 직분의 오확에 어ᄂᆞ
휘ᄒᆞᆫ ᄉᆞ셜을 다시 ᄒᆞᆯ 거ᄉᆞᆯ 이나 보ᄂᆞᆫ 뎨이 ᄒᆞᆫ ᄉᆞᄅᆞᆷ이 어
뒤이엿시 ᄒᆞᆫ ᄒᆞᆯ 진ᄃᆡ 이 ᄒᆞᆫ ᄉᆞ결이로 ᄒᆞ여 ᄃᆞᆫ 잇ᄯᅥ ᄒᆞᆯ 진 쥬ᄒᆞ여
황ᄒᆞᆫ 롯ᄌᆞᆫ 나 ᄃᆞᆫ여 ᄒᆡᆼ ᄒᆡᆨ을 버ᄂᆞᆫ 로 다 보리 못ᄒᆞᆫ 변셜 쥬
다산 굴ᄂᆞᆫ 을 이옷을 거싱ᄋᆞᆯ 조을 이여 확ᄒᆞᆫ 일을 ᄃᆞ로
별 그 외의 방ᄒᆞ여 보ᄂᆞᆫ 아이을 징계ᄒᆞ여 부ᄒᆞᆫ ᄒᆡ한 ᄉᆞ
셜의 조ᄉᆞᄒᆞᆫ 그 굼 ᄉᆞᆫ ᄌᆞᆨ의 ᄌᆞ니 ᄒᆞᆫ 셔 가ᄒᆡ 증계로 ᄒᆞᆯ 베
효기 조ᄒᆡ ᄒᆡ니 이 ᄌᆞᆨ의 부모ᄂᆞᆫ 부모 다여 교ᄒᆞᆫ ᄆᆞᆯ은

아들이되면호와홍다리밋울온편에ᄒᆞ여라

복엉이헝겁이보기와ᄀᆞᆺ치이실색이여가며ᄀᆞ식

들가로줄을만드러네흘만드러가섬ᄒᆞ여잇다가

써셔가ᄀᆞ식으로가지되ᄂᆞᆫ뒤안들로권화그려주나ᄂᆞ

할으버셔양후실ᄒᆡ여오라이만ᄒᆞᆫ보ᄂᆞᆫ져착기를

들이흔그할을써주소셔

최복신 당응일필셔